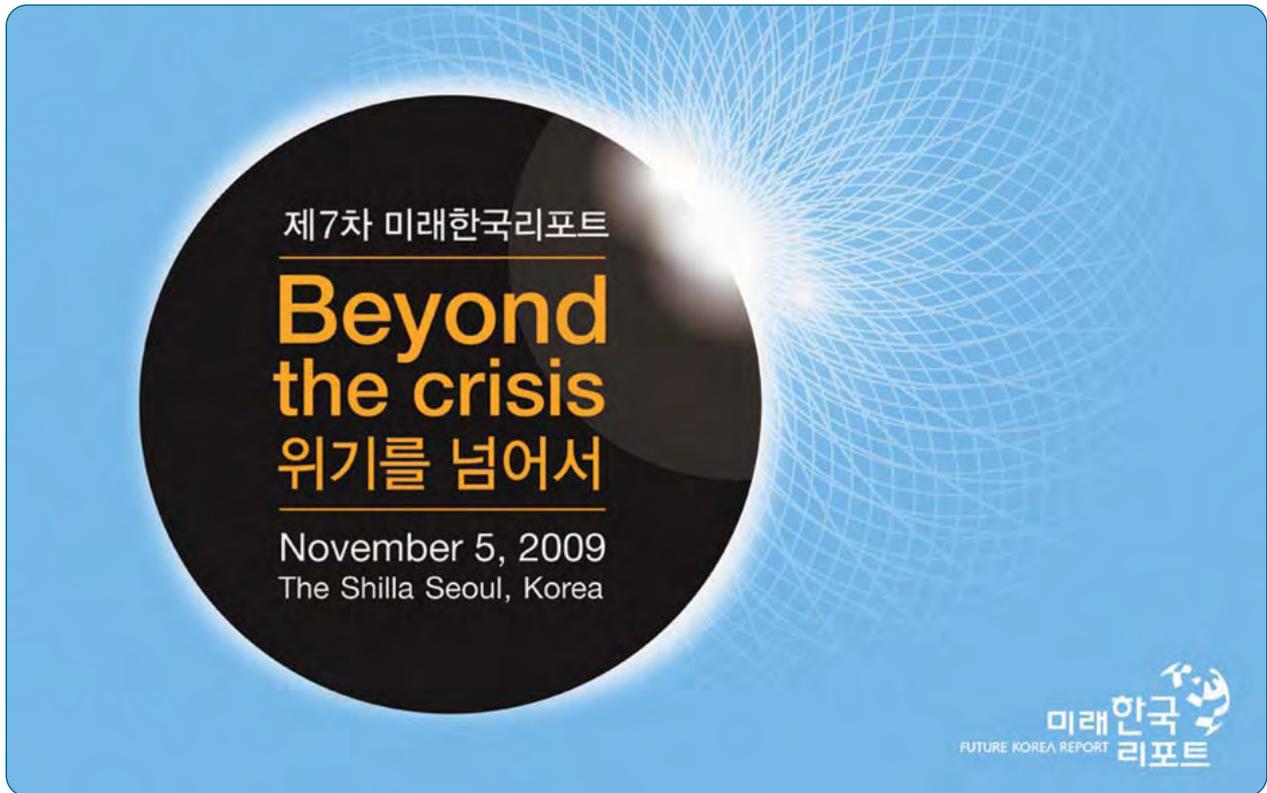


Beyond the crisis 위기를 넘어서

November 5, 2009
The Shilla Seoul, Korea



- 발표 일시: 2009년 11월 5일 서울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 오전 8시 - 9시 SBS TV 생중계
- 축사: 정운찬 / 국무총리
- 개회사: 하금열 / SBS 대표이사 사장
- 발표자: SBS 보도국 조윤증 미래부장, 박진원 미래부 차장, 김수현 미래부 차장,
KDI 차문중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 특별 연설: 리처드 돕스 /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대표,
맥킨지 & 컴퍼니 서울 사무소 시니어 디렉터
앨리스 암스덴 / 미국 MIT 정치경제학 석좌교수,
UN 개발정책위원회 위원
- 강평: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한국리포트 연혁

1차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2004. 9
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2005. 1
3차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2005. 9
4차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2006. 2
5차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2007.11
6차 기후의 역습	2008.11

안녕하십니까?

제7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 사회를 맡은 SBS 8뉴스 앵커 신동욱입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다각적인 취재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와 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먼저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영상 |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의제를 선정해
다각적 해결책을 제시해온
미래한국리포트!!

2004년 제1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켰고

2005년 1월 제2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일자리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2005년 9월 제3차에서는
교육 엑소더스의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동방학습지국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배리 맥고 / OECD 교육국장
“한국은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경쟁이 너무 심한 반면,
대학교부터는 경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006년 2월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달라진 행복의 조건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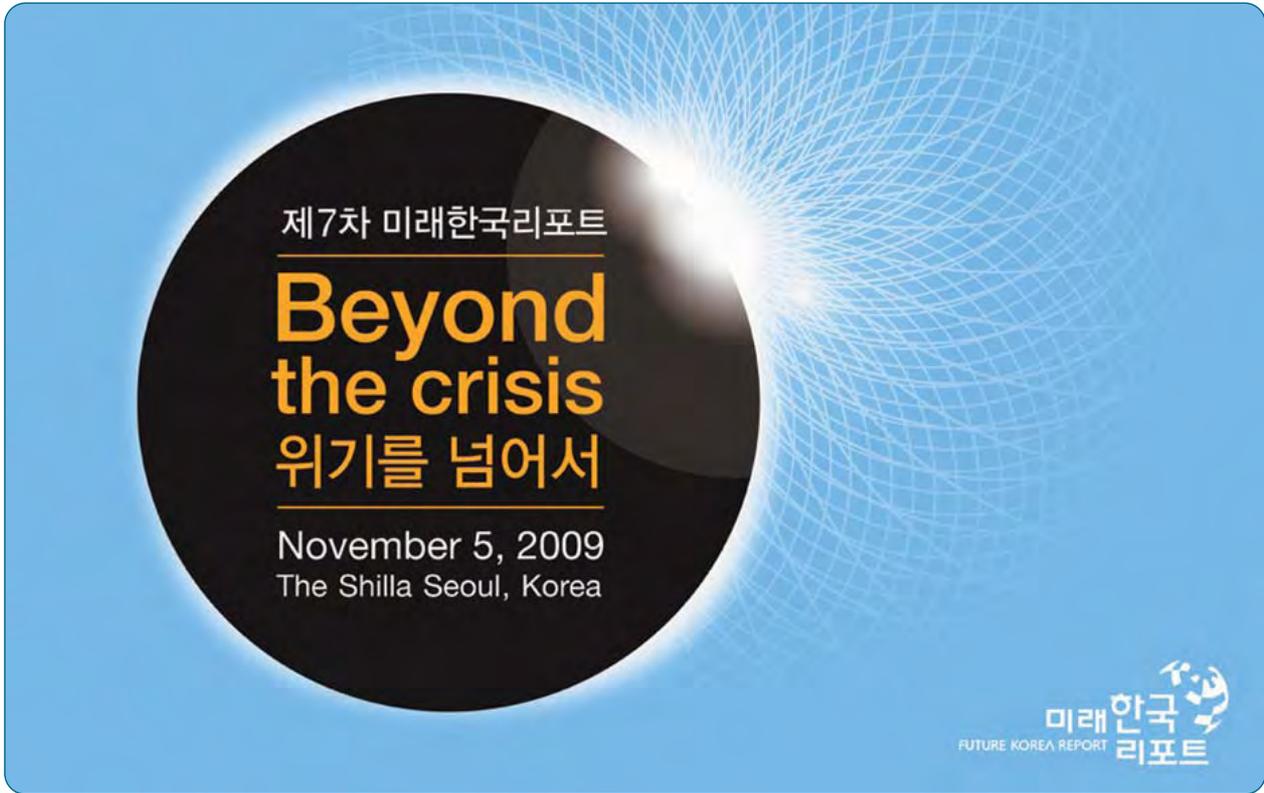
2007년 제5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2008년 제6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의 기후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로버트 왓슨 / 前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의장
“한국정부는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기후변화의) 적응과 감축에 대한
공통된 국가적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제7차 미래한국리포트는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1년,
급변하는 세계시장을 진단하고
이 위기를 넘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위기와 함께 찾아온 도약의 기회!
그 변화의 선두에
2009미래한국리포트가 앞장서겠습니다.



보신 대로 올해 미래한국리포트는
'위기를 넘어서' 를 주제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려 합니다.

개회사



하금열

SBS 대표이사 사장

먼저 하금열 SBS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하금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운찬 국무총리님, 또 강평을 맡아주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국회 일정이 오늘부터 빠듯합니다만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님, 또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또 한국 경제를 맡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미국 MIT의 엘리스 암스텐 석좌교수님과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돕스 대표를 비롯해서 발표를 맡아 주신 여러분들께 각별한 인사 말씀 드립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여섯 차례의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서 고령화 문제라든지 고용, 교육, 행복, 리더십, 환경문제 같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는 '위기를 넘어서' 라는 주제 아래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향상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또 세계무역시장의 중심축은 미국, 유럽으로부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최근 수년간 저성장의 늪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면서 잠시 2만 달러를 넘어섰던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의 지도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우리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이야기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미래한국리포트에는 국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기획자로, 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 컴퍼니가 지식 파트너로서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지혜를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7차 미래한국리포트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정 운 찬

국무총리

다음은 미래한국리포트 발표에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앨리스 암스덴 교수와 리처드 돕스 대표를 비롯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한국리포트는 그동안 고령화, 교육,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국가적 의제를 선정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위기를 넘어서, Beyond the Crisis’입니다. 시기적으로 참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극복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미래문제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선진국 진입의 확실한 도약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하여 더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을 실현하여 모든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회도 이러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堂堂히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발표회를 축하하며, 하금열 사장을 비롯한 SBS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 사



현 오 석

KDI 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7차 미래한국리포트에 공동 기획자로 참여해 주신
한국개발연구원 KDI 현오석 원장의 축사 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현오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찬 총리님, 정몽준 대표님, 이강래 대표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님, 윤세영 SBS 회장님, 하금열 SBS 사장님
그리고 엘리스 암스텐 교수님과 리차드 돕스 대표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을 모시고 SBS와 KDI가 공동기획한
제7차 미래한국리포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자리하여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것은 바로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좌표를 제시할 미래한국리포트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깊다는 금융위기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불황은 없고,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후퇴시킨 경제 위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긴 불황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 후 나타나는 세계 경제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제가 새로운 강자로 대두되고, 세계 경제의 전체적 구도와 역학관계가 변화하곤 했습니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신흥시장의 강력한 대두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노멀(global normal)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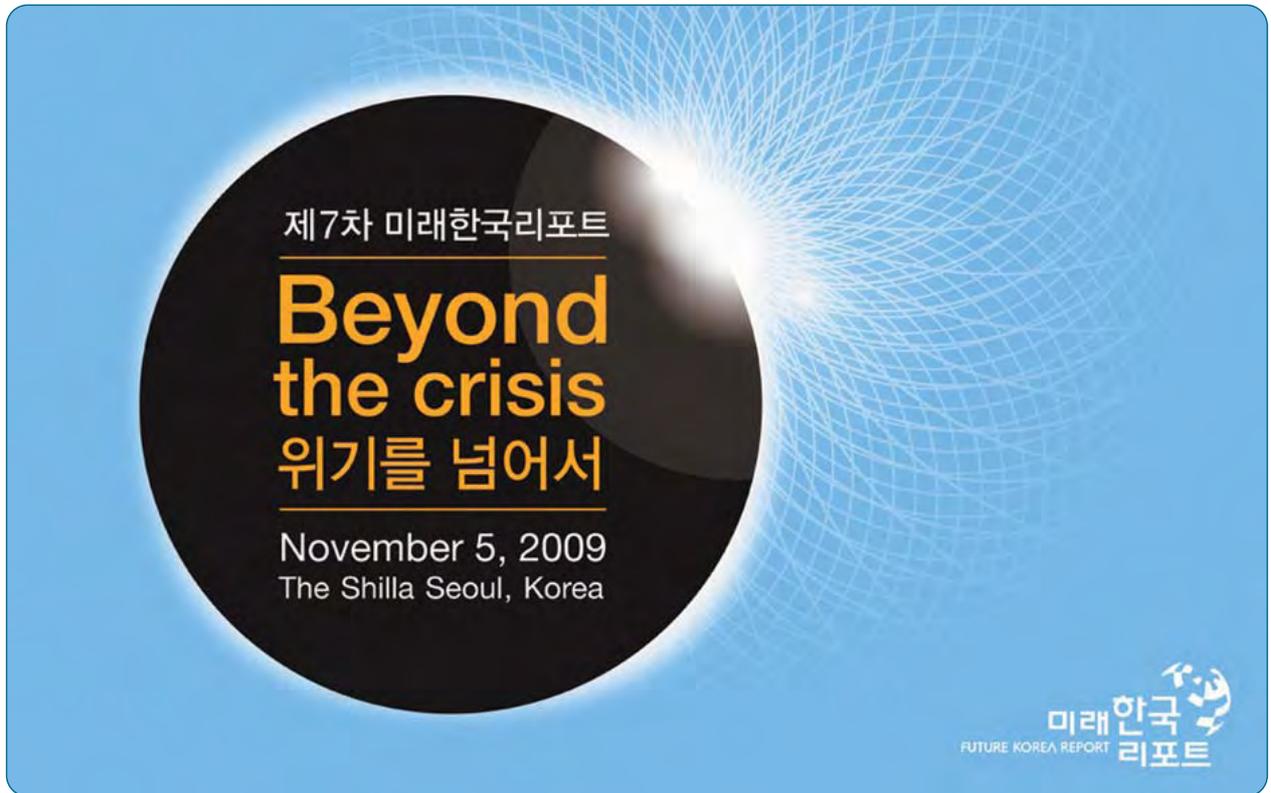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경제적 성취는 한 세대만에 국제원조를 받아야 생존이 가능했던 최빈국에서 개도국을 돕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G-20 총회의 유치는 반세기에 걸쳐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쾌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이룬 패러다임이 우리가 위기 이후 당면할 글로벌 노멀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이후 지속적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신발끈부터 고쳐 맨다고 했습니다. SBS와 KDI가 지식파트너인 맥킨지와 협력하여 준비한 미래한국리포트는 우리가 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이끄는 다음 거인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해 신발끈을 어떻게 고쳐 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제7차 미래한국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SBS와 KDI, 그리고 맥킨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고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위기를 넘어서' 를 주제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한 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제영상 |

“Now, the party’s over.”
“We have a global synchronized recession.”
“위기는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직면한 문제이다.”
“crisis” “crisis” “crisis”...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 1년!
세계 경제는 사상최대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움직이던 미국의 거대기업들이 쓰러지고
전세계 증시 시가 총액 4조 달러가 증발했으며
세계 GDP 총액이 5조 8천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는 동안
일부 신흥국들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률 8%대를 무난히 뛰어넘으며
세계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롤랜드 빌링어 (맥킨지 & 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신흥시장 부상은 한국에 특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이 흐름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 대단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우리 경제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IMF 위기를 극복해낸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번
빠른 회복 속도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기업의 성적표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기엔 이릅니다.
1인당 GDP는 2만 달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지표들도
우리 경제의 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처드 탈러 / ‘넛지’ 저자
“한국의 경제는 중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노동집약적 방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움직이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제 우리 경제의 DNA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I.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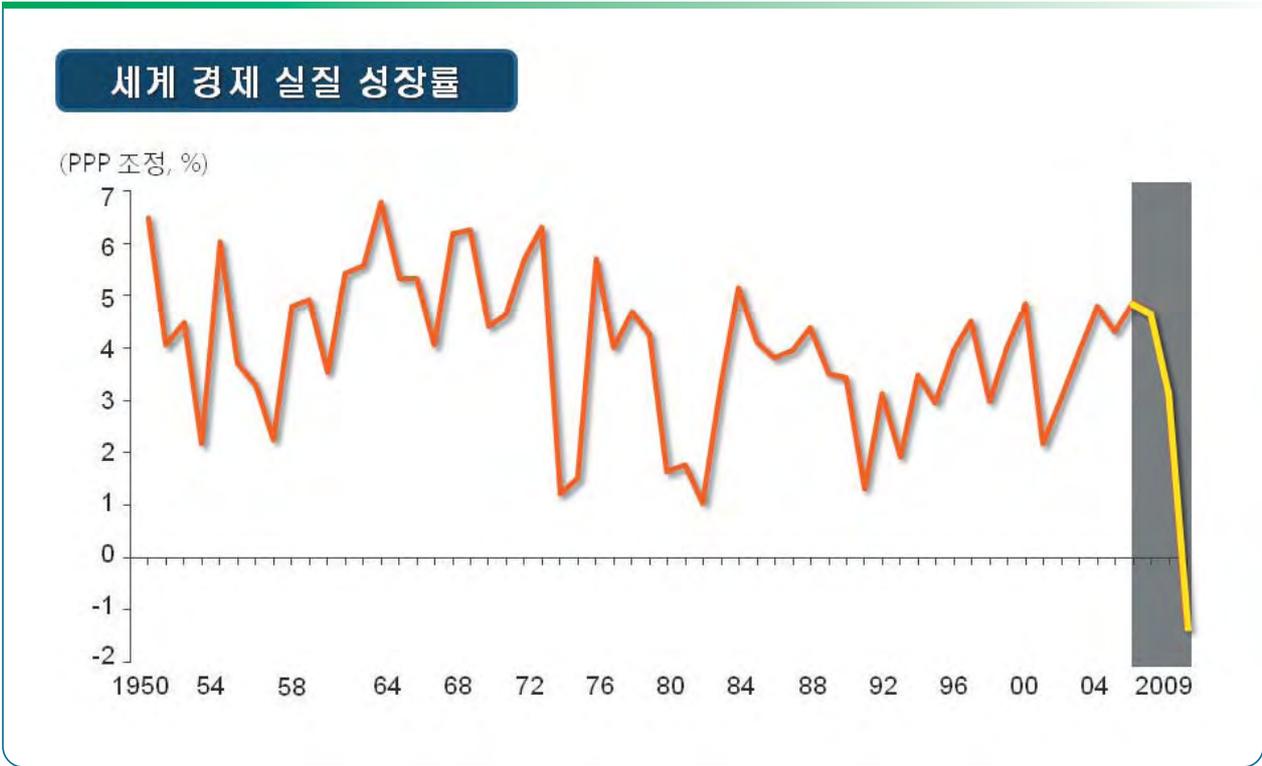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 박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가을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침체에서 회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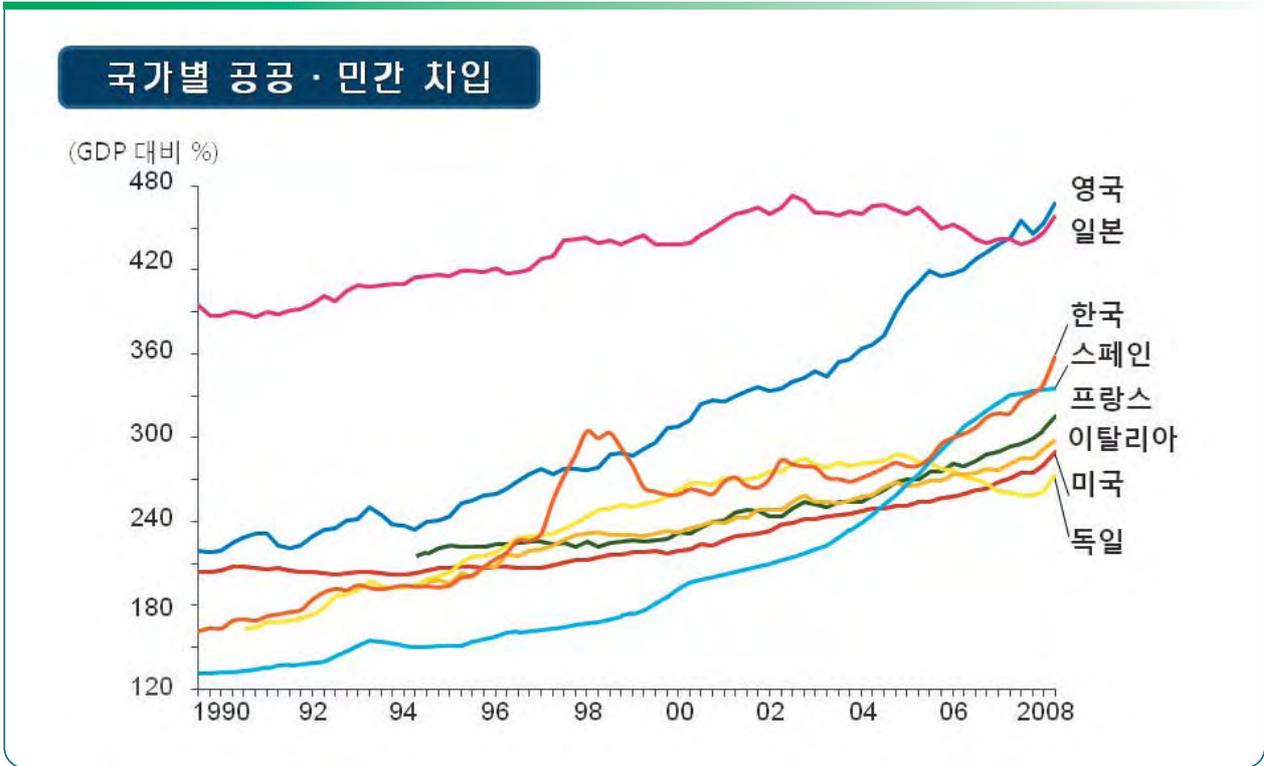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몇 차례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GDP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시장이 빠르게 팽창했고 교역이 급증했으며, 시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 위기가 이런 성장과 팽창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회복 중입니다.

출처: Penn State University Global GDP tables (1950-2003), Global Insight WMM (2004-2010), IMF

부채와 함께 성장한 세계 경제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 성장은
천문학적 부채 증가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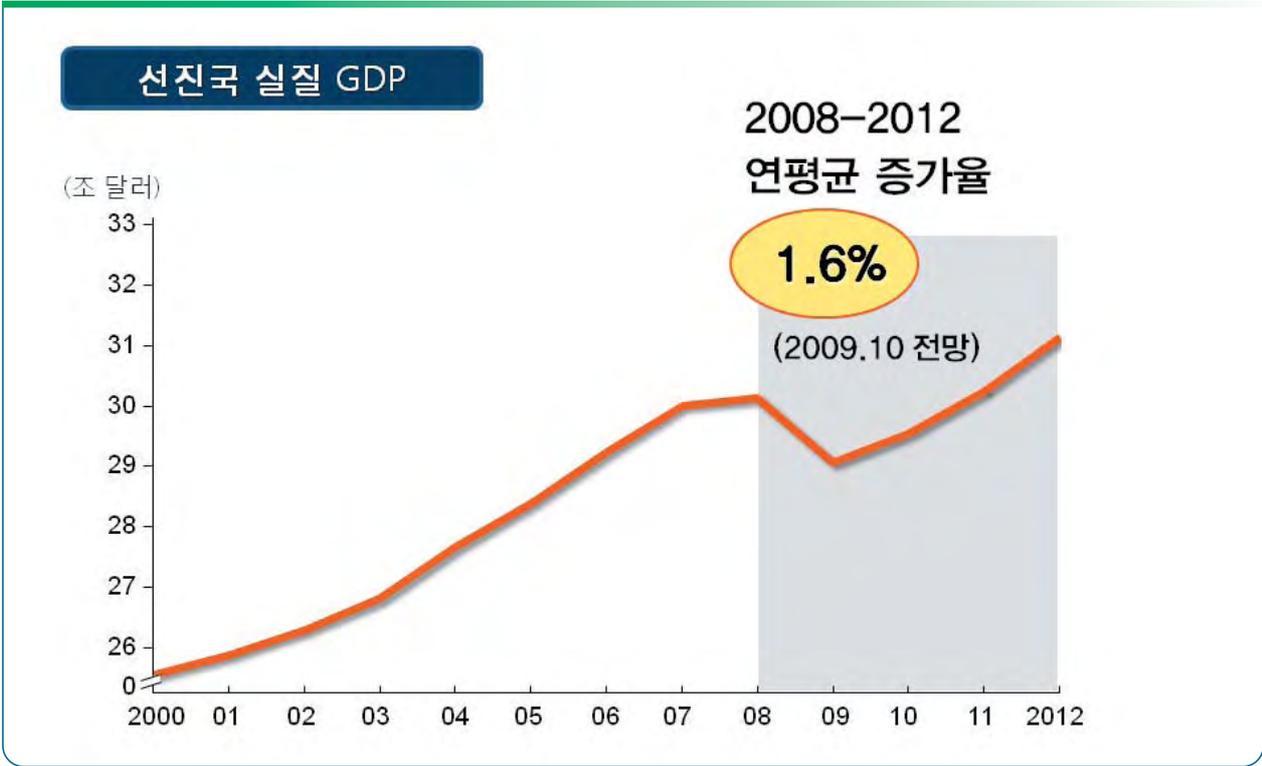
기업과 가계는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 쓰면서
소비를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잔치는 끝났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빚을 내서 전례 없이 많은 자원을
경기 부양책에 쏟아 부었습니다.

출처: Central Bank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Haver Analytics; McKinsey Global Institute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락



그러나 정부의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고, 선진국의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로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경제 분석 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는 2012년까지 선진국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1.6 퍼센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처: Global Insight; McKinsey Global Institute

뉴 노멀 (New Normal), 새로운 기준

1. 금융 레버리지 감소

차입금 축소, 합리적 소비, 저축 확대

2. 정부 역할 증대

- 금융 부문 감독, 조율
- 경제 전략 수립자
- 주요 투자자

3. 중국과 신흥 시장 부상

세계 경제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몇 가지 새로운 기준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기업과 개인이 차입금을 줄이고 있고,
현재 빌린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정부도
엄청난 빚 부담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은 부채 규모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축소와 저성장이 뉴 노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또 위기 와중에 정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금융 부문 감독과 조율 기능이 강화됐으며,
경제 전략 수립자, 주요 투자자로서
정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과 서유럽이 세계 소비의 60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경제 중심축이 중국과 신흥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설



리처드 돕스 (Richard Dob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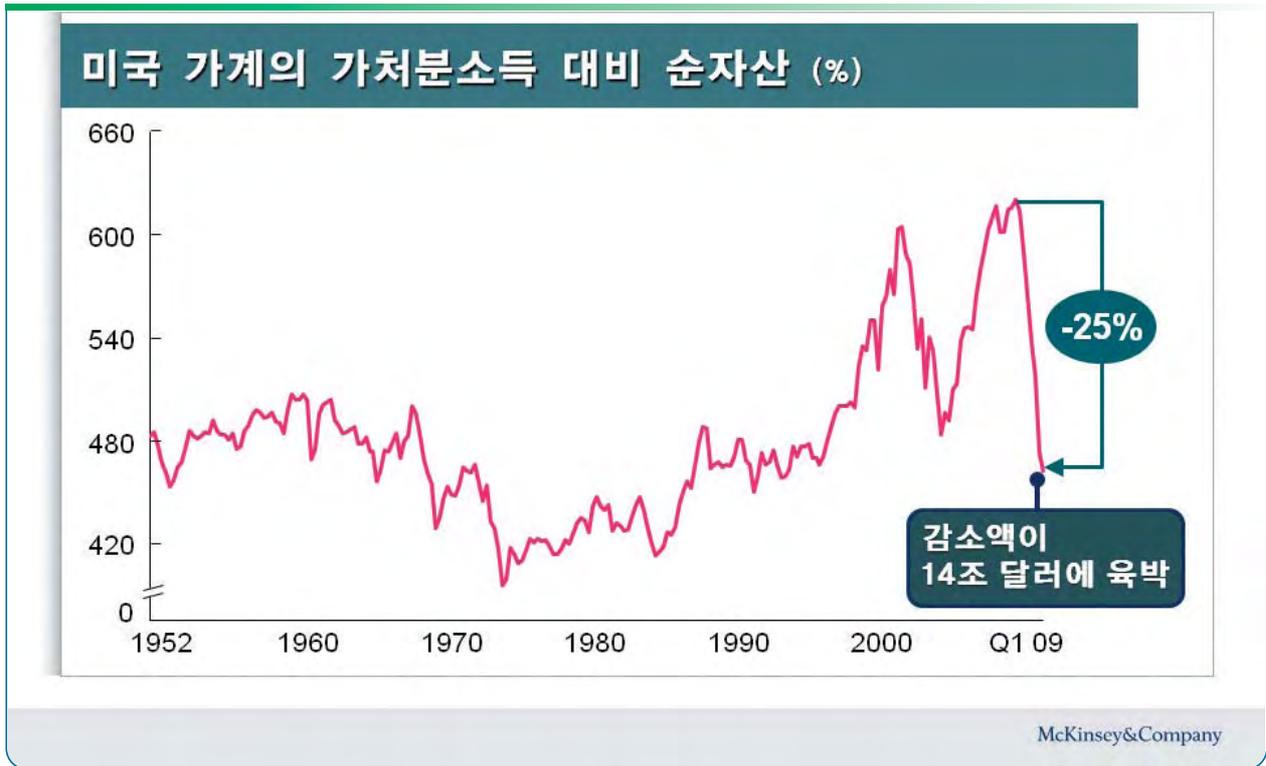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대표
서울 사무소 시니어 파트너

이제 뉴 노멀이 지배하는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각국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리처드 돕스 대표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처드 돕스 씨,

선진국의 자산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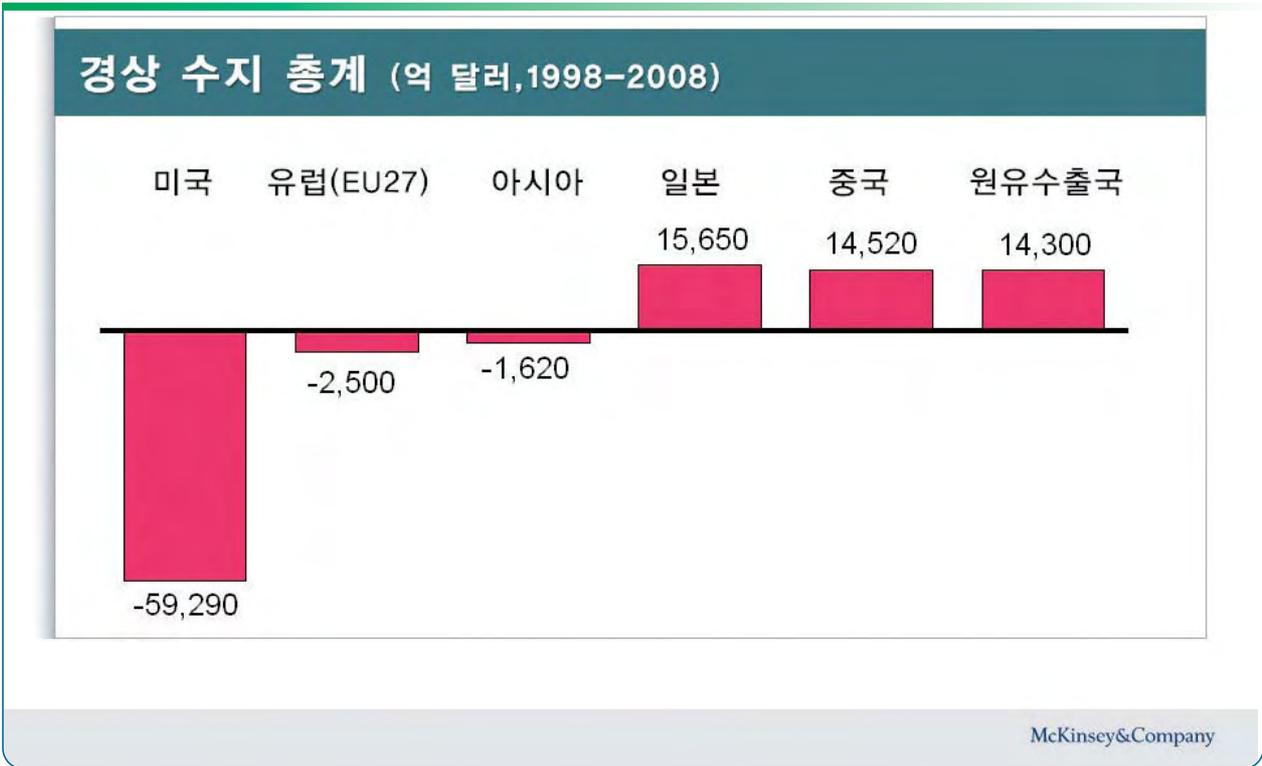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돕스입니다.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요즘,
 한국은 이제 생존, 더 나아가 도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상화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는 분명히 위기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년 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견인하며 소비를 주도했던 미국에서는
 이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자산이 14조 달러나 줄었습니다. 한 해 GDP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출처: Federal Reserve; McKinsey Global Institute

글로벌 불균형, 성장 위협



한편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배경 중 하나인 글로벌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으면 회복과 성장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출처: Global Insight, Bloomberg, McKinsey Globa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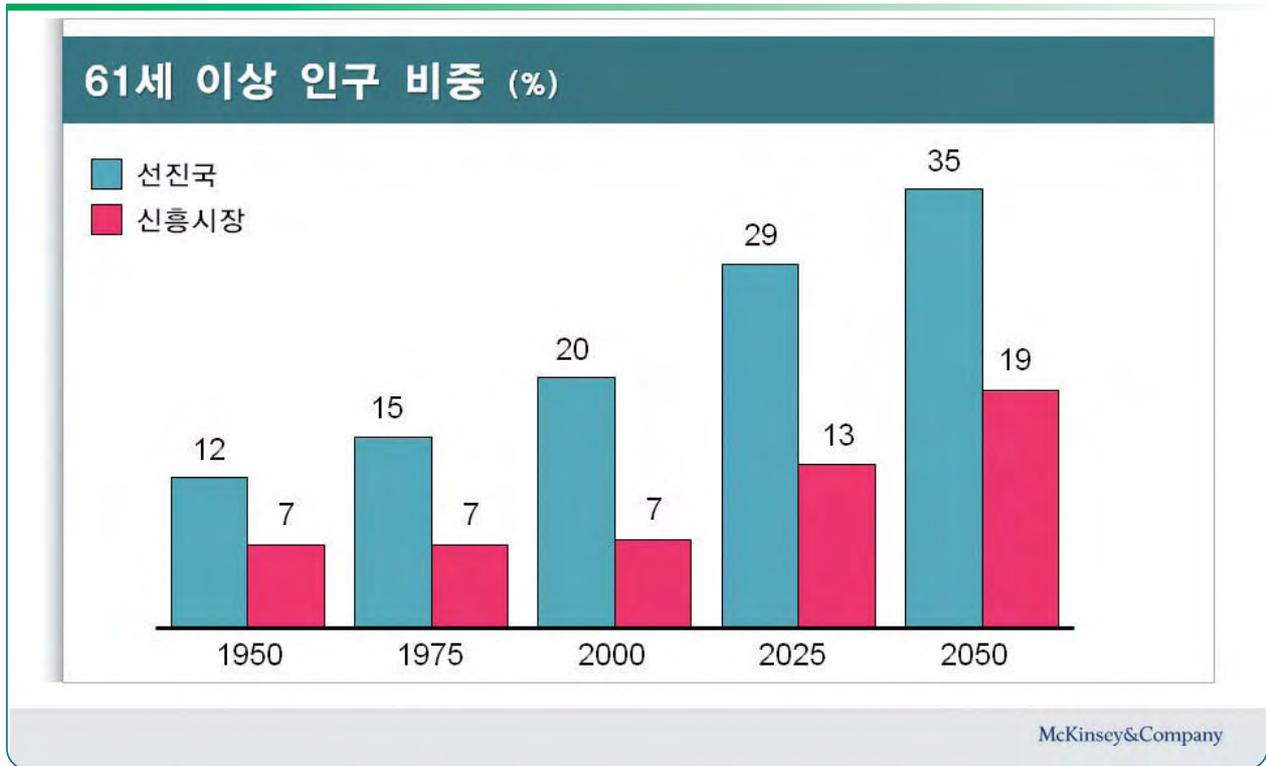
경제 위기 속 우리가 당면한 도전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세계 경제에 다섯 개의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잘 헤쳐나가는 기업과 국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 파도를 거스르려다간 변화의 물결 속에 허우적거리다 좌초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한국은 민간 소비 지출과 글로벌 교역이라는 파도를 타고 이를 잘 헤쳐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도 이러한 다섯 개의 변화의 파도를 잘 탄다면 더욱 강한 체질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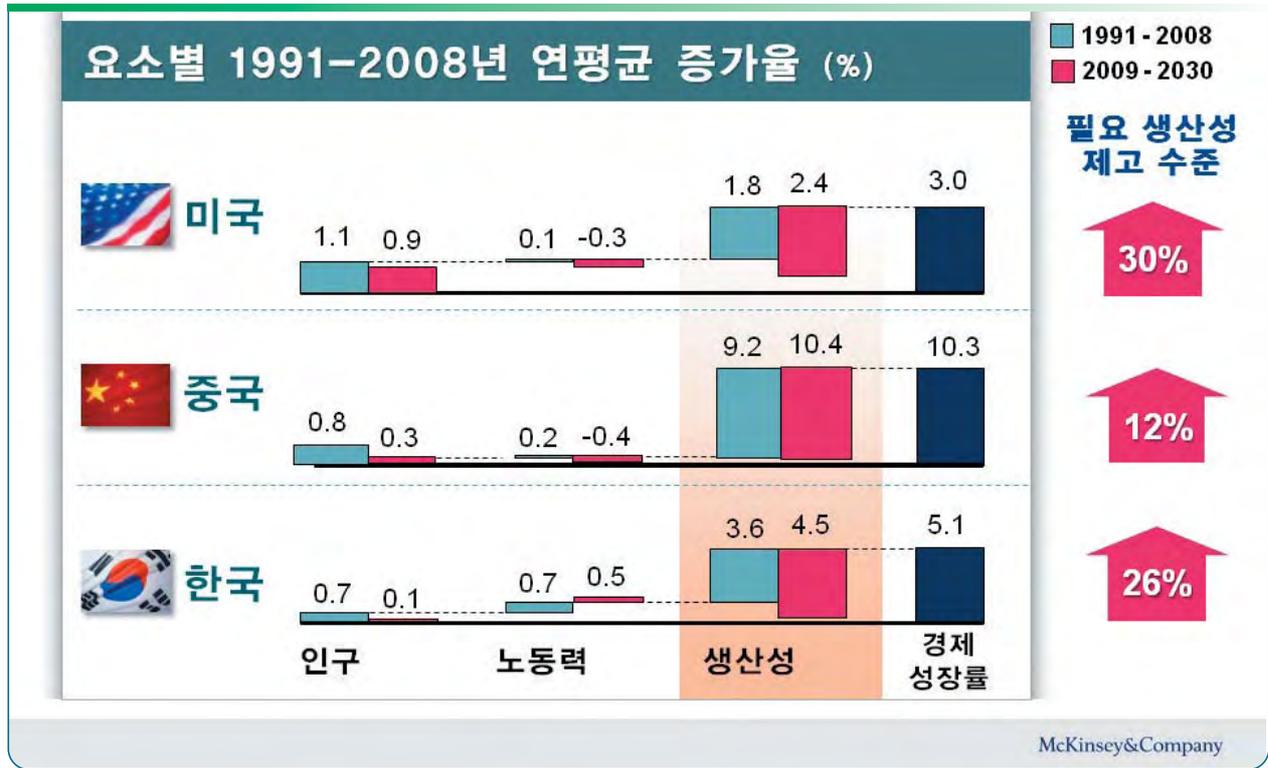
첫 번째 변화의 파도는 고령화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소비자와 노동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숙 경제의 경우 61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00년 20%에서 2025년경 30%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산이 줄고 연금 제도가 취약해졌음을 감안할 때 이 중 많은 수는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수 백만에 달하는 노령 인구가 더 오랫동안 노동 인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는 노령 소비자의 소비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인 한국은 이제 노령층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판매와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UN World Aging Population 1950-2050

생산성, 성장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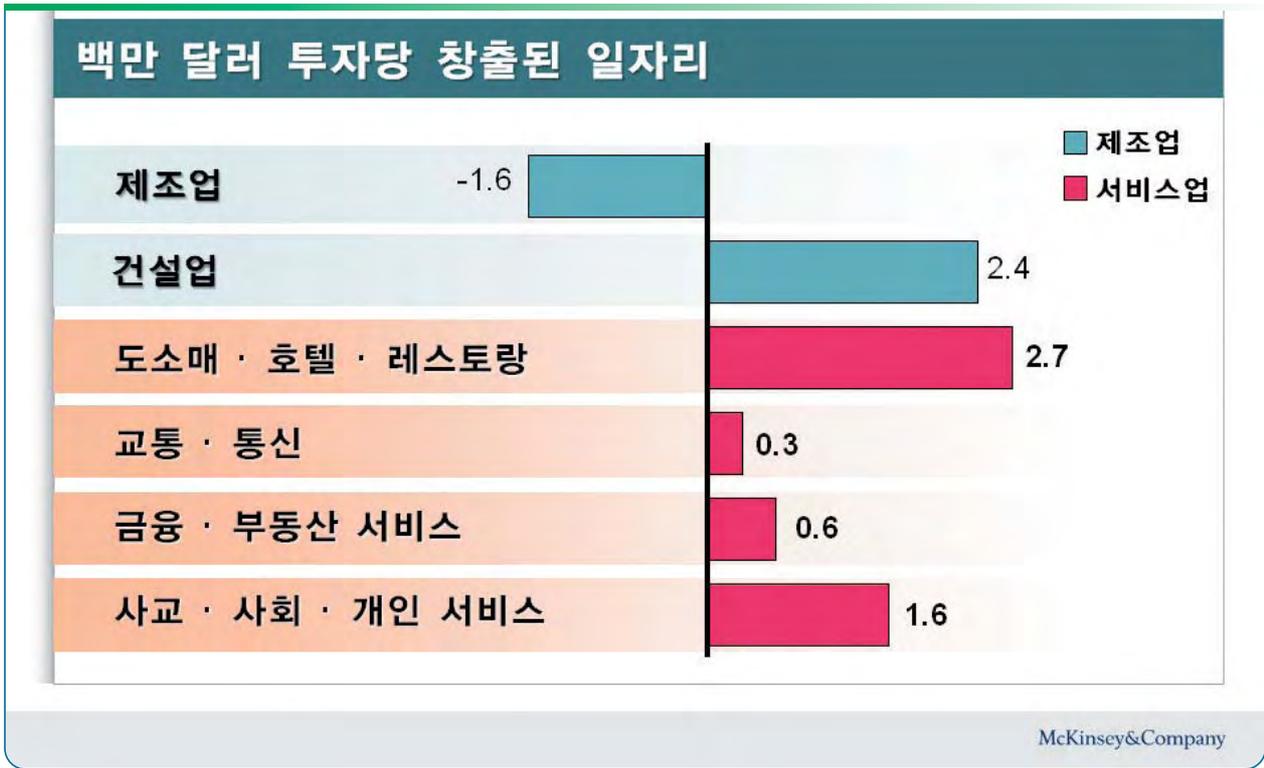
두 번째 변화의 과도는 생산성에 관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 노동력 증가, 생산성 개선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표에서 보듯, 지난 15년간 한국은 생산성 및 일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해 막대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이제 더 이상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대대적인 생산성 혁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제고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정부 등 대규모 고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먼저 생산성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은 이러한 생산성 성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기기들에 혁신적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이제는 모든 물체에 센서가 장착되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 되어 '사물이 인터넷화'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인구가 네트워크화 될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출처: Global Insight, McKinsey Global Institute

서비스, 일자리 창출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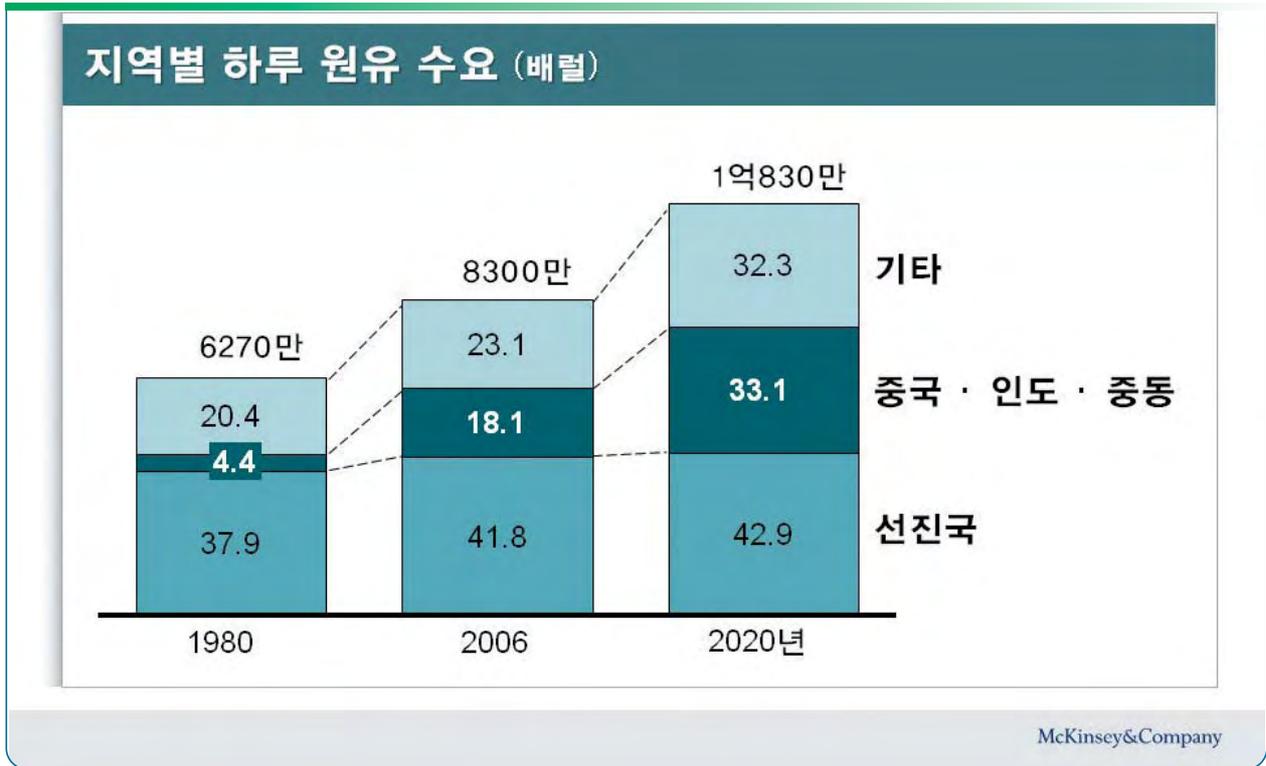


세 번째 변화의 파도는 서비스 부문입니다.

서비스 부문은 선진국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제조업의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전 세계의 서비스 부문을 비교한 맥킨지의 연구 결과,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단위 투자당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합니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에게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lobal Insight WIM;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에너지 수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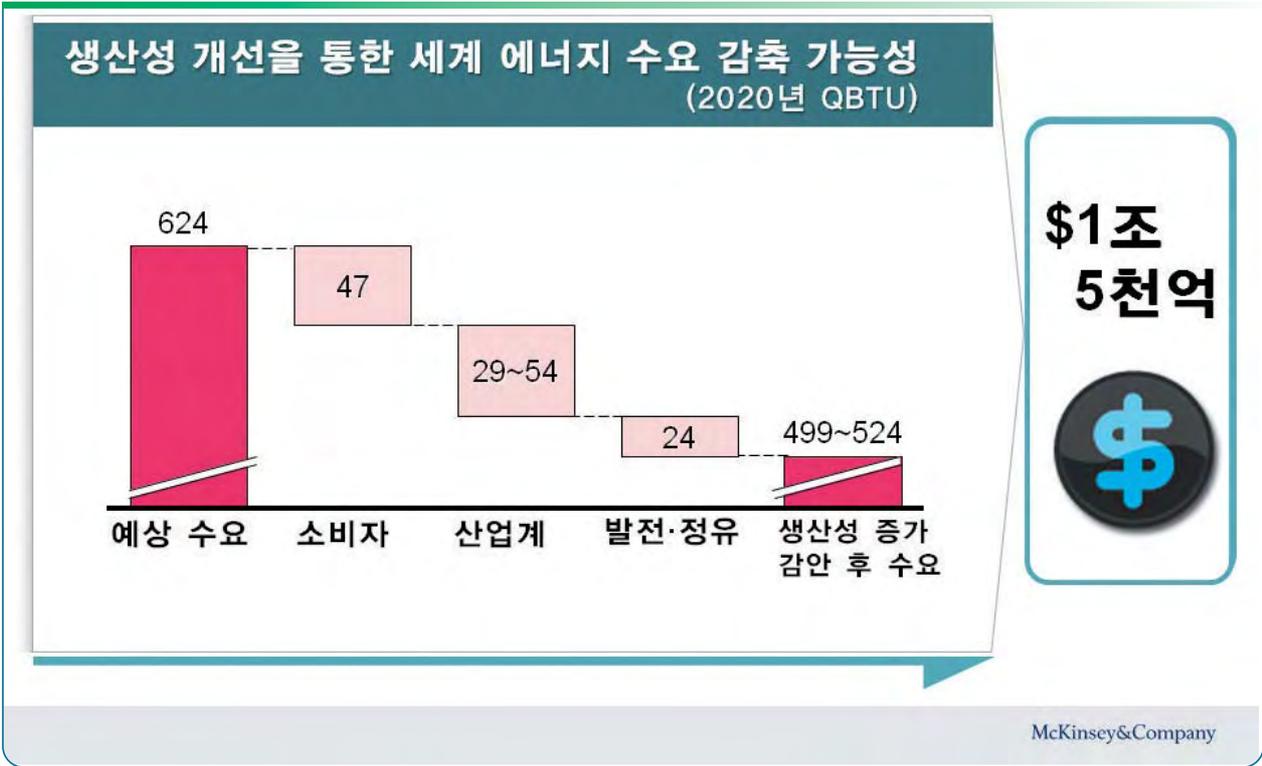
네 번째 변화의 과도는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 관련 변화입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은 경기침체로 인해 정점 대비 하락한 상태이나 이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고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유가를 예로 들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다시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의 연구 결과 글로벌 에너지 생산성(혹은 단위 에너지 소비량 당 경제산출량)을 높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출처: IEA; McKinsey Global Institute Global Energy Demand Mode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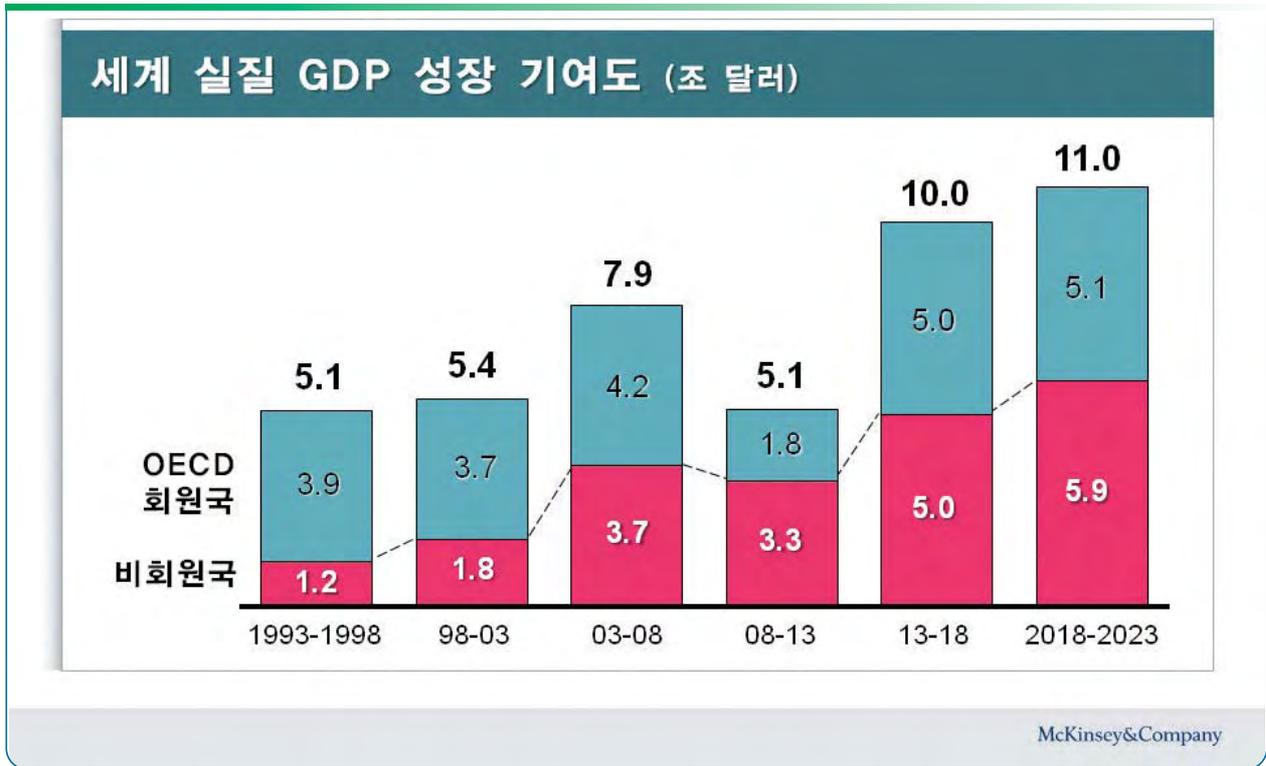
에너지 효율 더 높여야



기존의 기술들만 잘 활용해도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율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절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막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이 이러한 트렌드를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출을 통해 주도할 수 있다면, 막대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McKinsey Global Institute

개도국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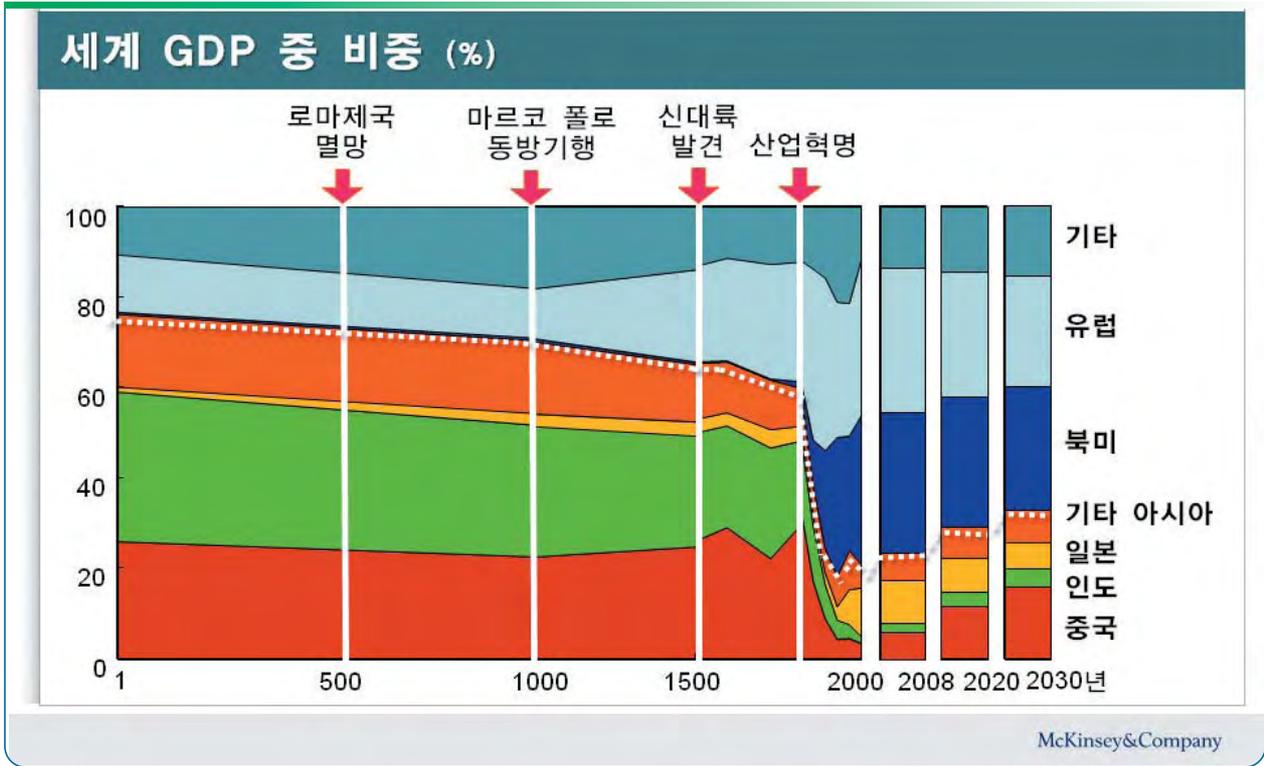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변화의 파도는 글로벌 경제 활동의 변화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세계의 GDP 성장은 이전과는 현격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선진국 이외의 지역이 더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신흥 경제국들은 경제위기 이전 GDP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2009년 2/4분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연 8%대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OECD, McKinsey Globa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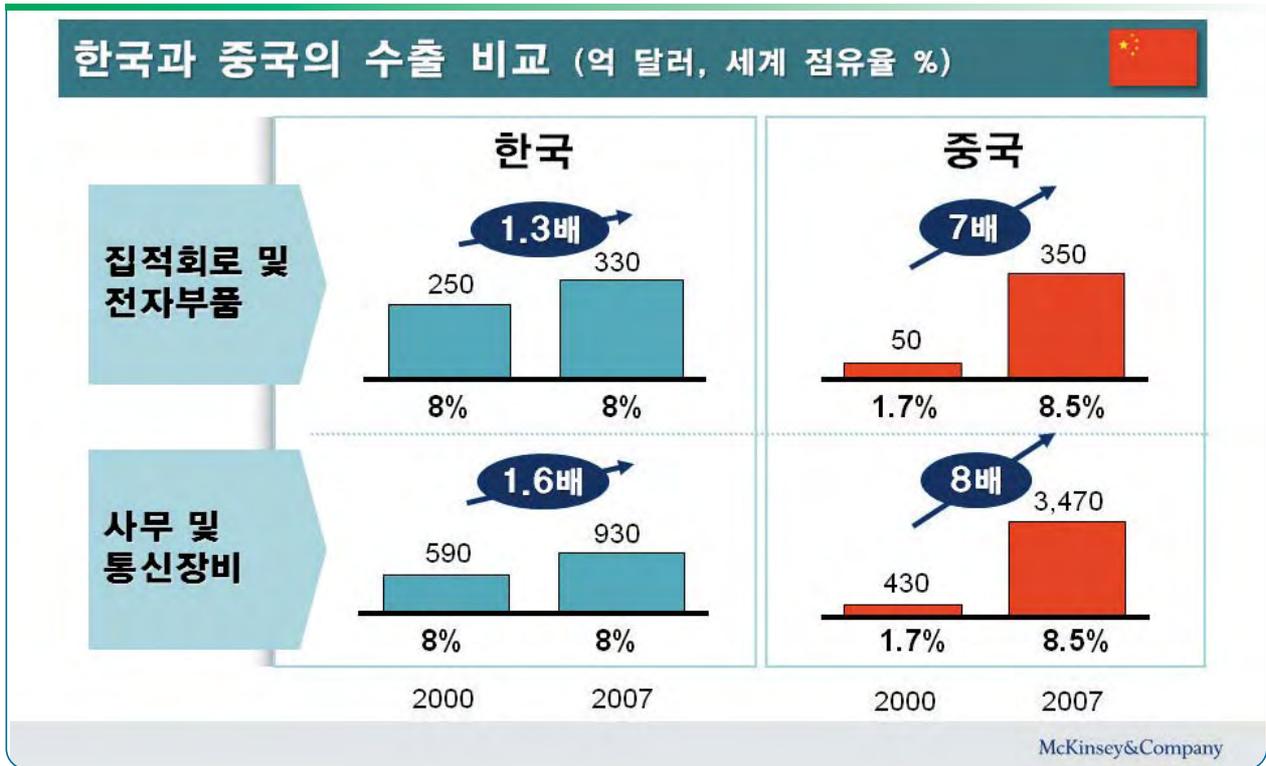
아시아의 재부상



글로벌 경제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활동 구도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출처: Angus Madison's Historic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 Global Insight, McKinsey analysis

신흥국과 경쟁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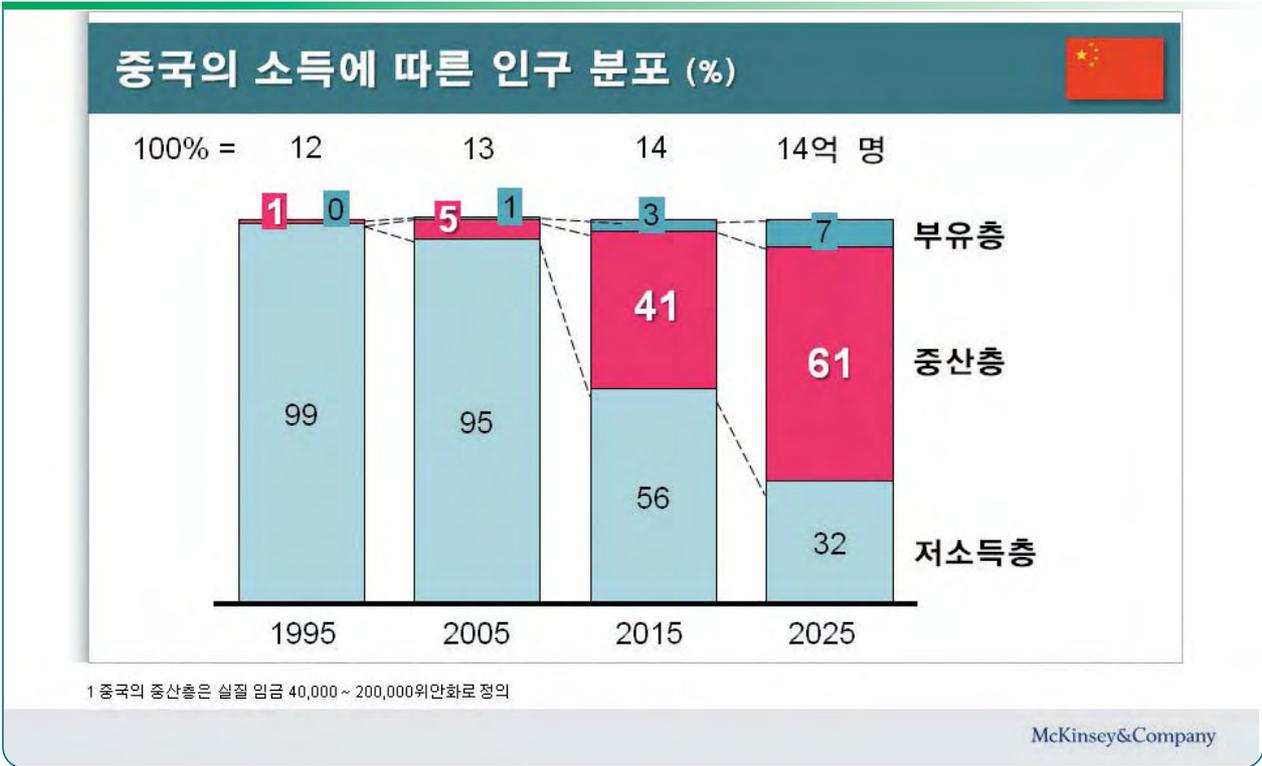


중국 및 신흥 경제국들은 한국에게 더욱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 칩과 전자제품 등 부품 산업과 사무 및 텔레콤 장비 산업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점유율 면에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문에서 중국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한국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이제 중국은 과거 한국이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한국을 바짝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시장의 부상 이면에는 기회가 공존합니다.

출처: WTO, McKinse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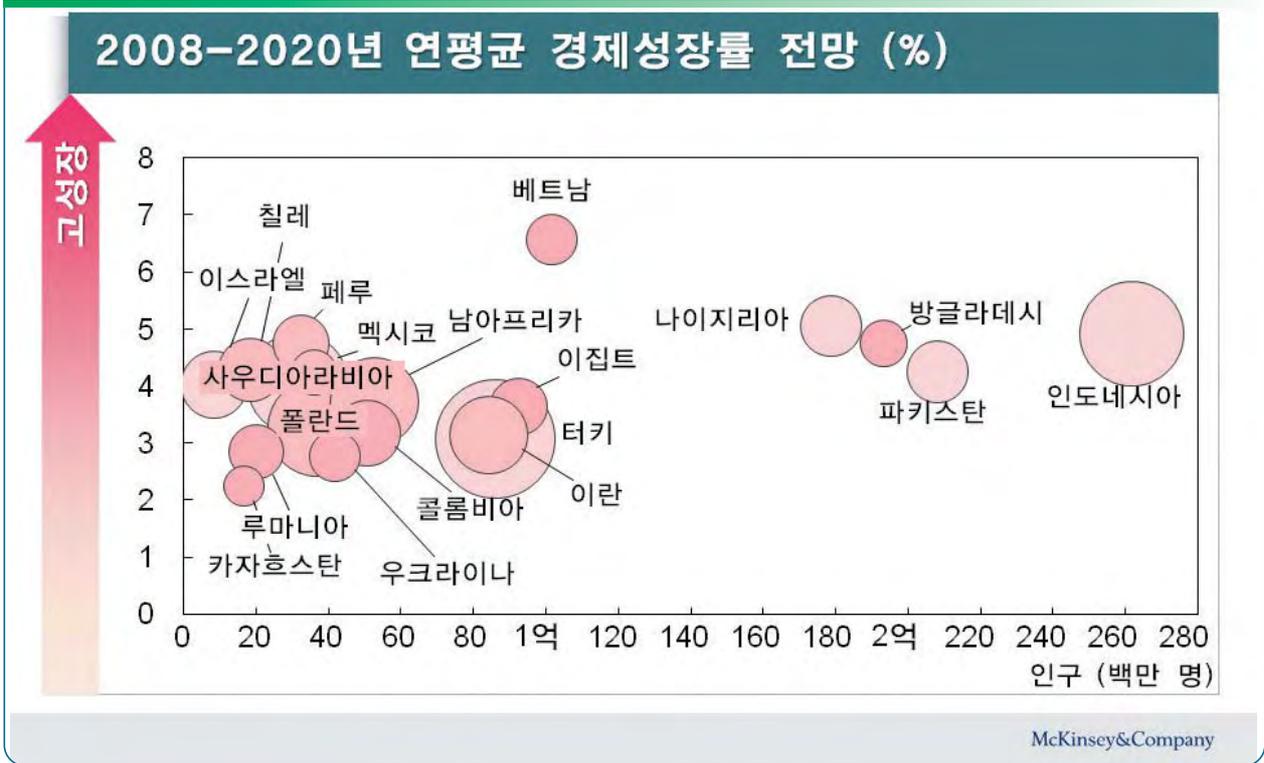
중국·인도, 新 중산층 10억



맥킨지 연구 결과, 개도국의 도시화는 막강한 소비력을 갖춘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국과 인도만 해도 중산층 인구 합계가 10억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소비 증가분의 40%까지가 중국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출처: McKinsey Global Institute China Consumer Demand Model, v2.0, BOG v2.0

신흥 시장, 중국·인도 + α



중국과 인도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경제국의 성장은 중요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신흥 경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 성장 관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신흥 시장을 경쟁상대이자 고객으로 인식하여 신흥 시장의 소비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불황으로 인해 성장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재, 한국에게는 제한된 범위나마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의 위협과 기회에 관해 SBS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출처: Global Insight, McKinsey analysis

| 영상 |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 2강,
G 2로 떠오른 중국은
통신장비 수출 세계 1위다.

OECD가 집계한 중국의 통신장비 수출액은 2007년 845억 달러.
2위인 한국보다 세 배나 많다.

중국의 휴대폰 가입인구는 7억 명,
올 상반기에만 1억 대의 휴대폰이 팔렸다.

리 자밍 / 삼성전자 중국 휴대폰영업 상무
"중국은 13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 가입율은) 50% 정도 됩니다.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이 지속된다면 사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중국은 올해 1000명당 승용차 보유 댓수가 30대 수준에 이르렀다.
승용차 수요폭발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올해 승용차 시장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7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재만 / 북경현대자동차 사장
"중국의 자동차 생산 및 수요가 미국을
초과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국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꼽는
태양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은 저만치 앞서 뛰고 있다.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세계 1위 선택. 선택의 지난해 매출은 13억 달러.
본격 양산을 개시하던 5년 전보다 100배나 늘었다.

스정룡 / 선택 회장
"(태양에너지가) 금년은 5-6기가와트 시장이지만
10년 후에는 100기가와트 시장이 도래할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8% 이상의 고속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경제.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8년, 골드만 삭스는 2027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마다 예상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II. 한국 경제 현주소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 김수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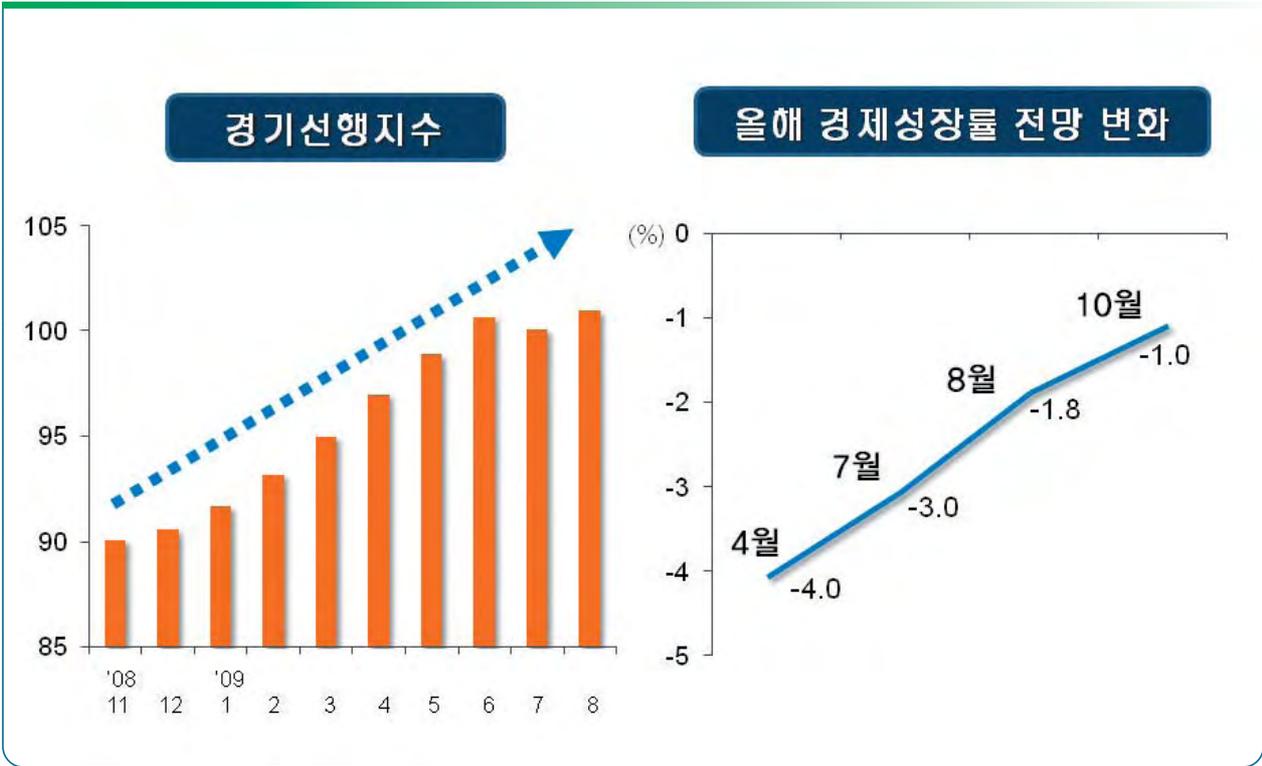
앞서 보신 대로

위기가 몰고 온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한국 경제가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 빠른 회복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은
10여 년 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이번 위기에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에 맞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요?
우리는 정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출처: OECD (2009), IMF (2009)

한국경제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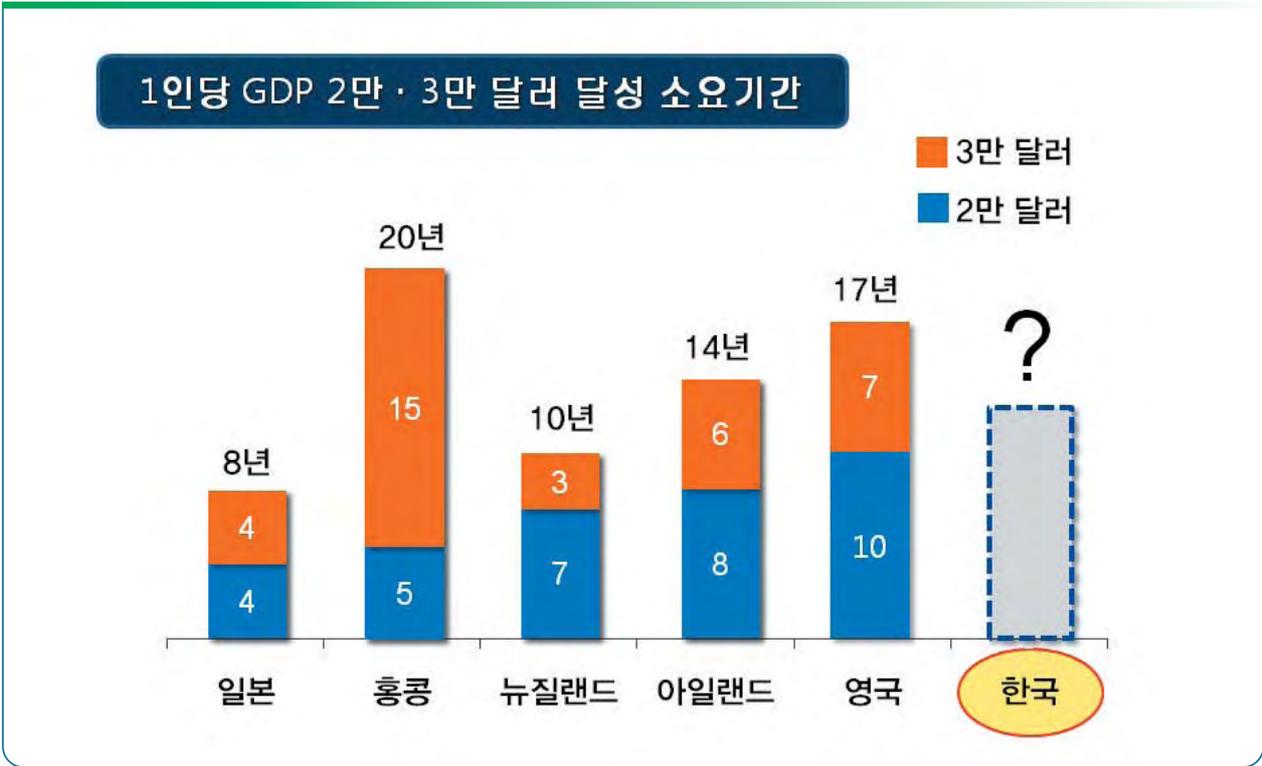


한국의 GDP, 즉 국내총생산 순위는
 지난 2005년 12위에서 몇 계단 하락해
 지난해 현재 15위입니다.

1인당 GDP는 지난 2007년 단 한 번 2만 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떨어져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IMF (2009.4), 기획재정부 (2009.7)

1인당 GDP '2만 달러의 벽'



1인당 GDP 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일본은 4년, 홍콩은 5년,
뉴질랜드는 7년, 아일랜드는 8년이 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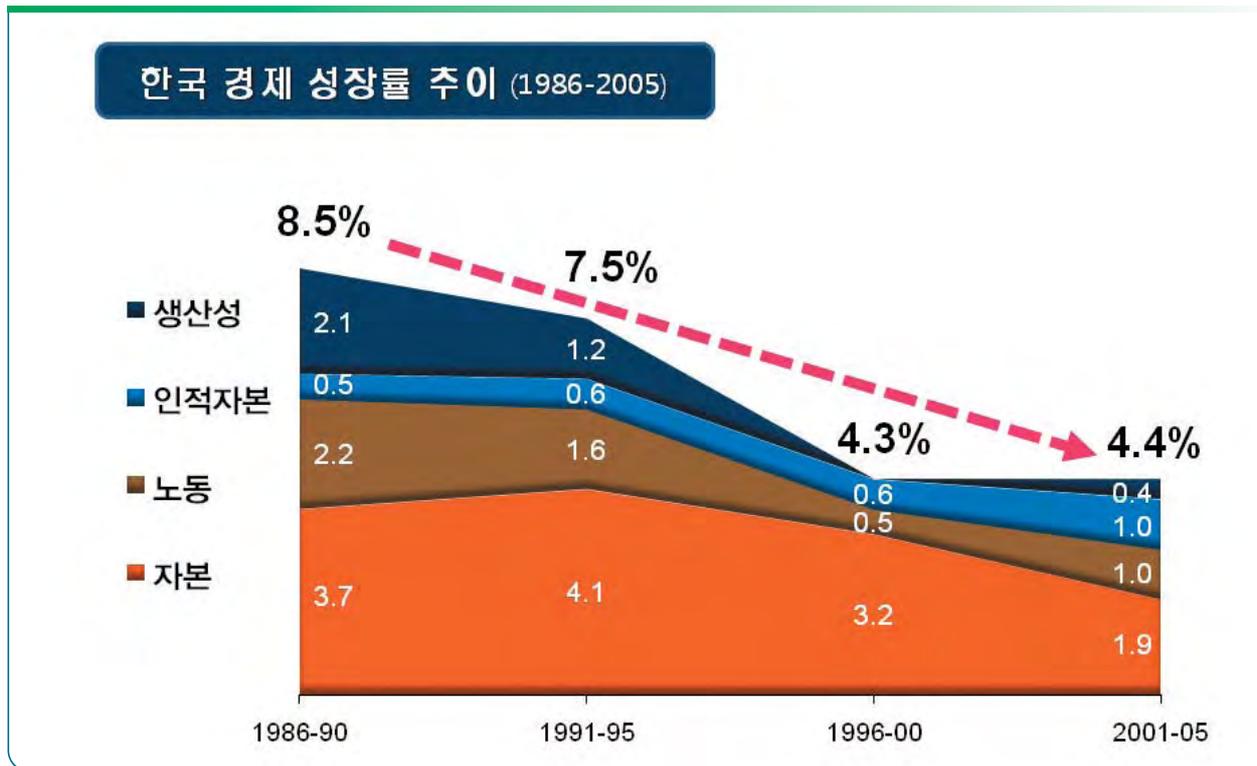
고속 성장한 일본의 경우 단 8년 만에
1인당 GDP 만 달러에서 3만 달러대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2007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1인당 GDP가 처음 만 달러를 넘어선 1995년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만 달러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율이나 당시 세계 경기 등의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 성장의 가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출처: IMF (2009)

과거 성장 방식 한계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8퍼센트 안팎의 고성장을 해왔지만, 이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경제 성장 기여 요인을 노동, 자본 투입, 생산성과 인적 자본으로 나눠 봤을 때 특히 노동과 자본 투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생산요소 투입을 양적으로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거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KDI (2009)

노동력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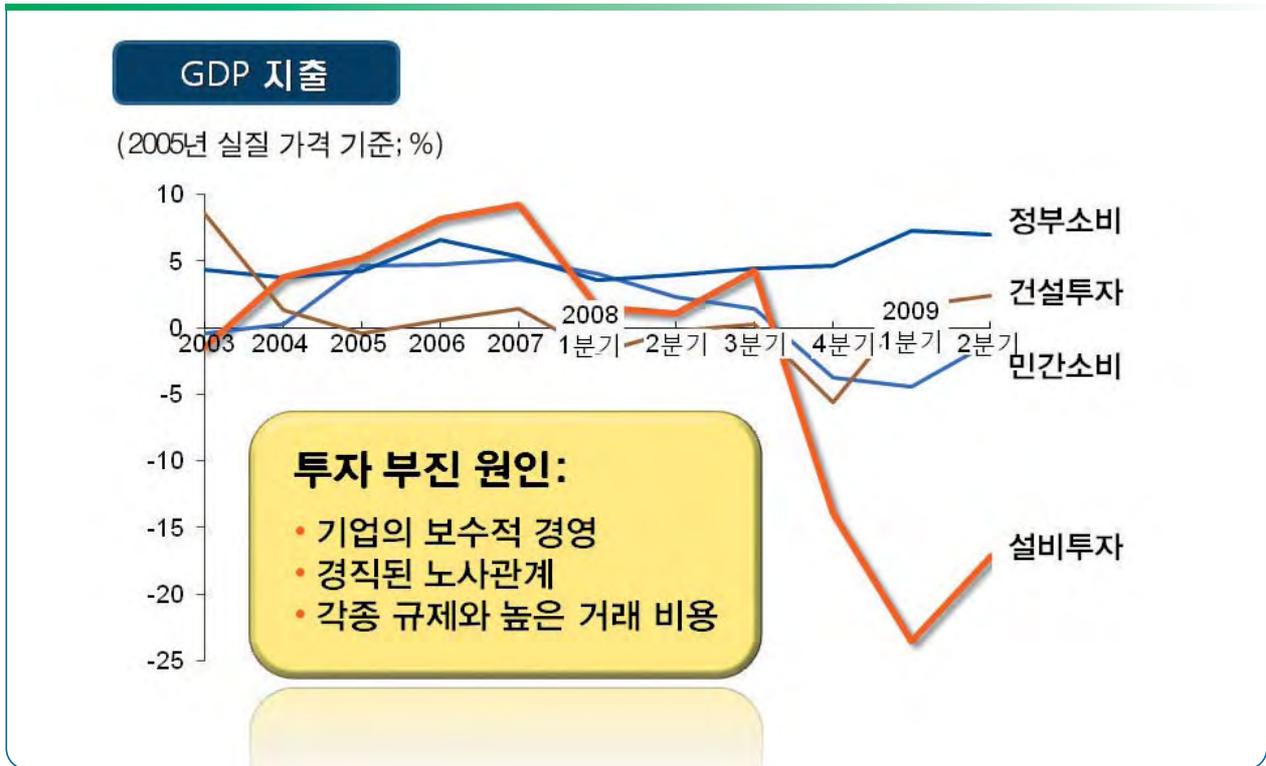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투입량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노동력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투자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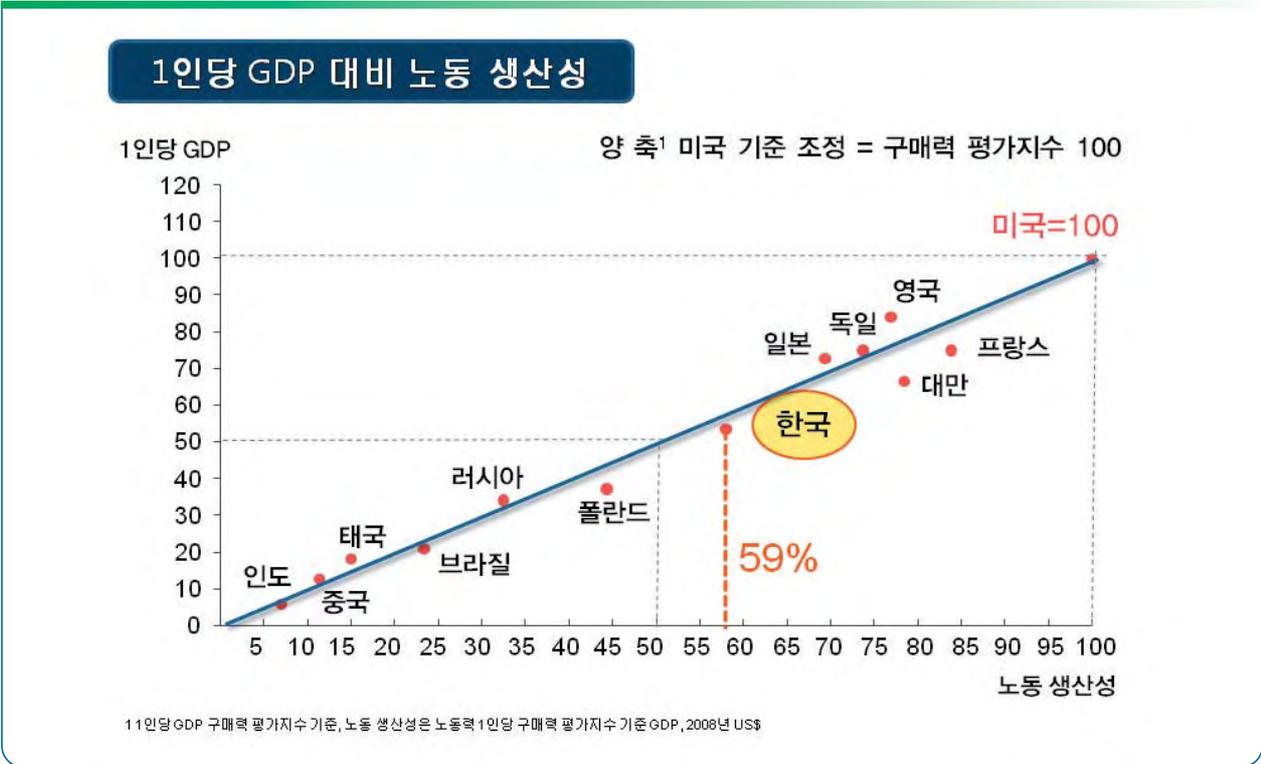
자본 투입을 살펴보니,
특히 민간 투자가 저조합니다.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일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지금보다 투자를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보수적인 경영, 경직된 노사관계,
각종 규제와 높은 거래비용이 투자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출처: 한국은행(2009)

결국 생산성 문제



이렇게 양적 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둔화되는 추세라면, 질적 요소인 생산성을 높여 이를 보완해 줘야 하는데, 이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9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lobal Insight

한국경제 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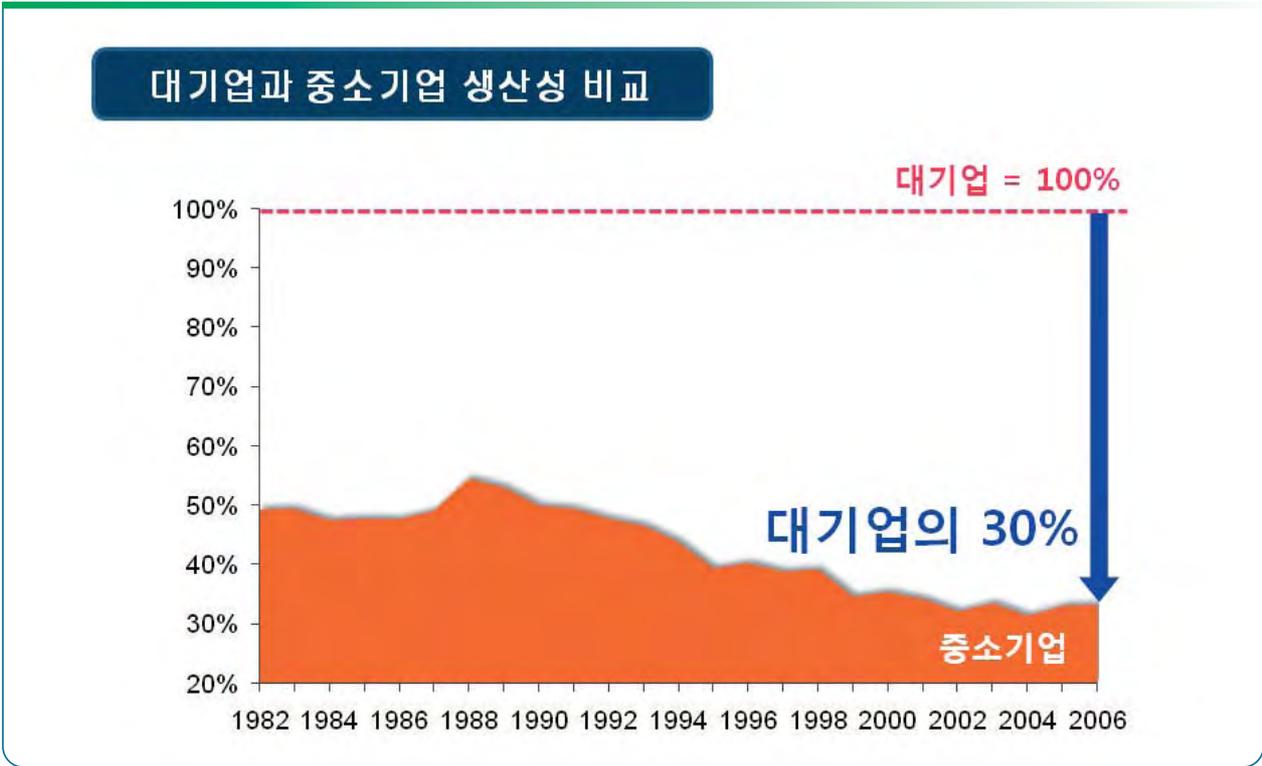
앞에서 보셨듯이 한국 경제는 양적 발전 단계에서 질적 효율이 중시되는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대기업이 주력하는 수출, 제조업 분야는 이 변화를 주도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사양화되며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주도하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의 격차와 지체 현상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 고용과 소득 문제, 제도와 문화의 지체 현상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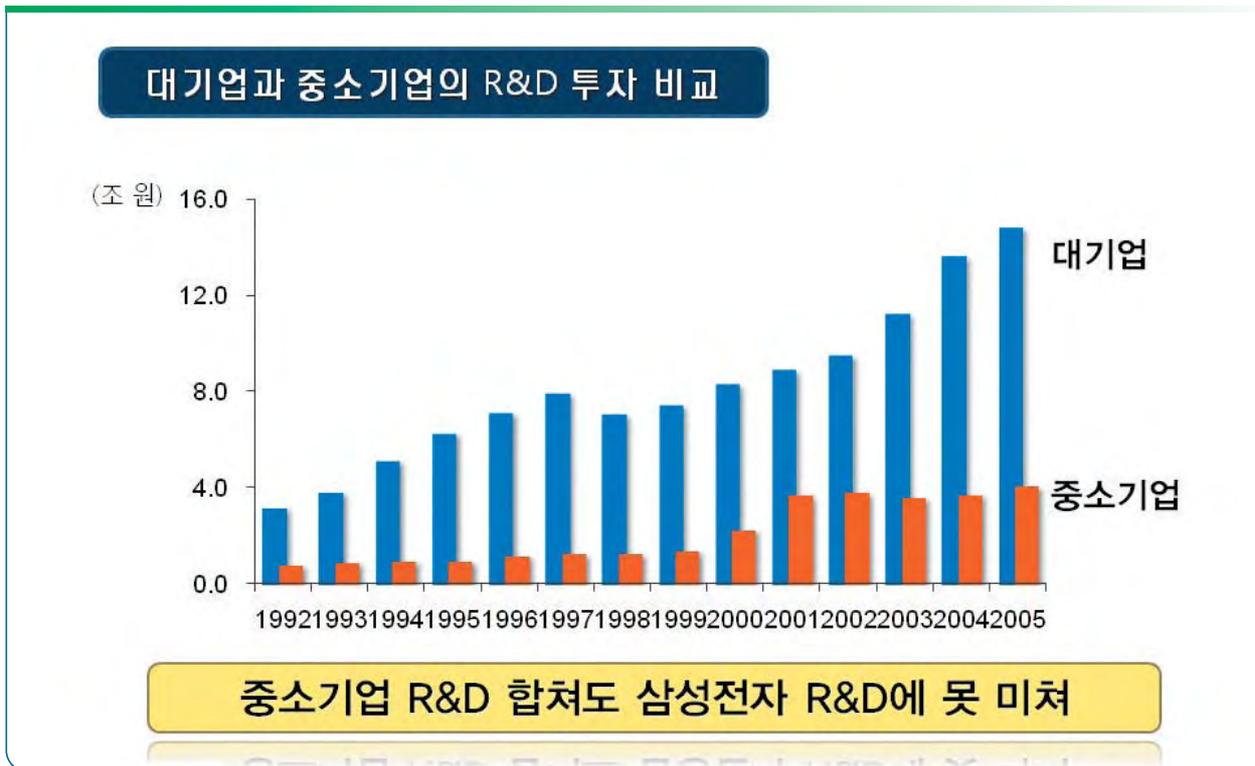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대기업의 30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후발 공업국,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내몰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처: KDI

R&D, 대기업에 집중



R&D, 즉 연구개발비 투자는 대기업 애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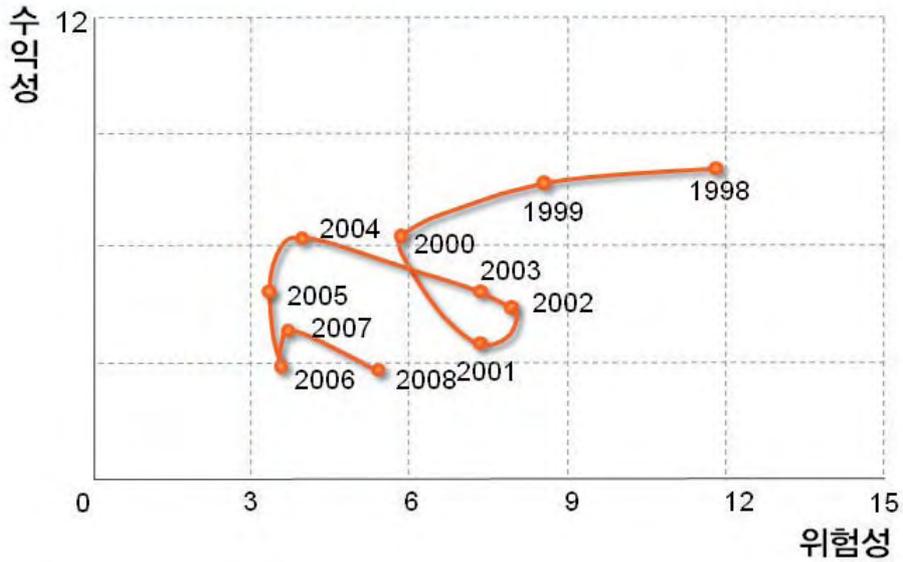
대기업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벤처 붐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R&D 투자액을 모두 합쳐봤자
삼성전자 한 기업의 R&D 투자액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출처: KDI

거꾸로 가는 벤처

코스닥 벤처 기업의 위험성과 수익성



혁신이 생명인 벤처 기업들의 성적도 부진합니다.

지난 10년간
코스닥 기업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나타낸 이 그래프를 보면
초창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했던 벤처기업들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위험은 회피하고 적은 수익에 만족하는
벤처답지 않은 벤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출처: KDI (2009)

대기업도 안심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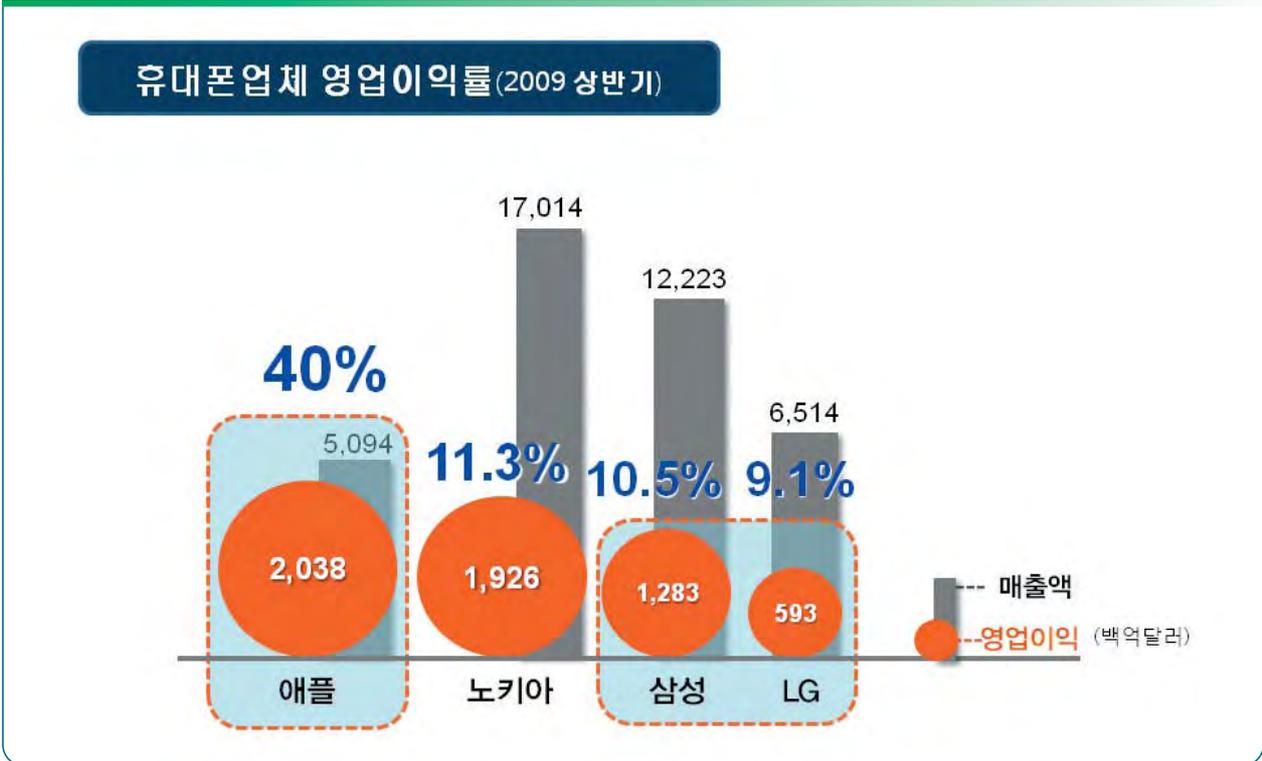
그럼, 대기업은 안심해도 될까요?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김준경 (2009), KDI

휴대폰 강국, 그러나...



현재에 안주해선 안 되는 이유,
IT 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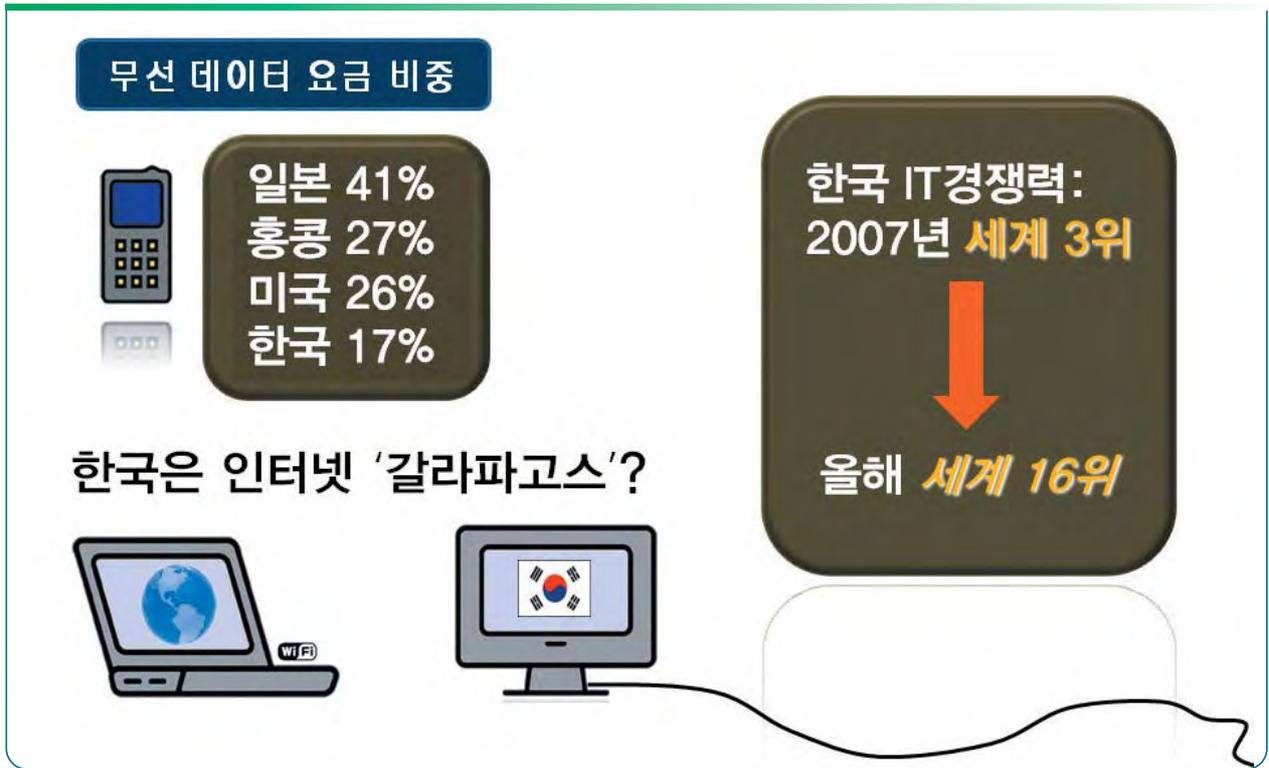
한국의 삼성과 LG 모바일은
아이폰의 애플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고도
영업 이익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폰에서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스마트 폰인 아이폰 하나로
삼성과 LG 두 회사 모바일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욕구를 읽고 시장을 선도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출처: Corporate reports, Strategy Analytics, Bernstein estimates and analysis

한국은 '무선 인터넷 후진국'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
하지만 와이브로 기술을 일찌감치 개발해 놓고도
통신업체들이 음성통화와 유선 인터넷 수익에 안주하는 동안
정작 세계적인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흐름에서는 뒤쳐져
무선 데이터 사용 비중이 낮습니다.

구시대적인 규제와 폐쇄적 시장환경이 겹쳐
한국은 인터넷의 오지, '갈라파고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나라의 IT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에서 올해 16위로 추락했습니다.

출처: 메릴린치 (2009),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9)

핵심, 원천 기술 부족

LCD: 핵심 소재 국산화율 30%

휴대폰: 수출액의 15% 퀄컴사에 지급(2007)

선박: 로열티 3억 달러 지급(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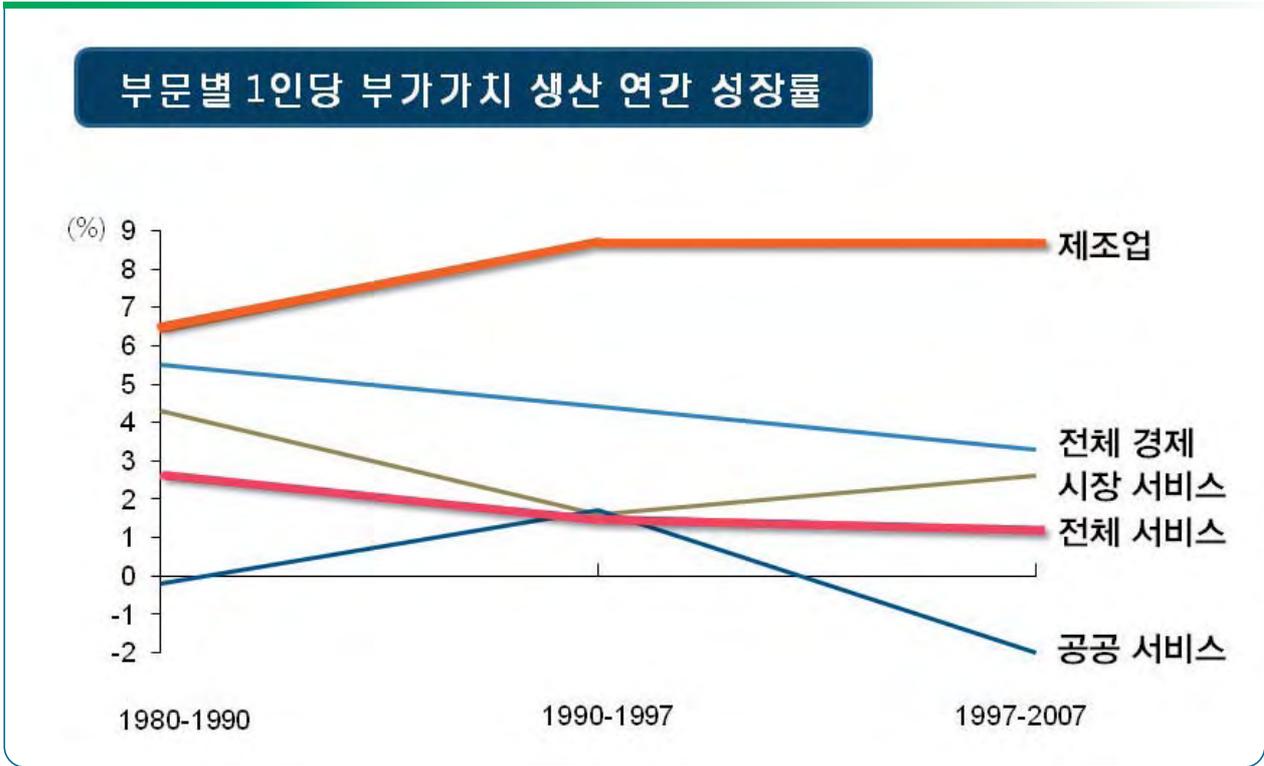


핵심 원천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젭니다.

LCD의 핵심 소재 국산화율은 30퍼센트에 불과하고, 2007년 휴대폰 수출액의 15퍼센트를 퀄컴 사에 지급했으며, 최대 호황인 조선업에서는 대형엔진, LNG선 특수탱크 제작에 3억 달러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했습니다.

출처: 김민우, 노원종 (2008.8)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서비스업 생산성 저조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서비스업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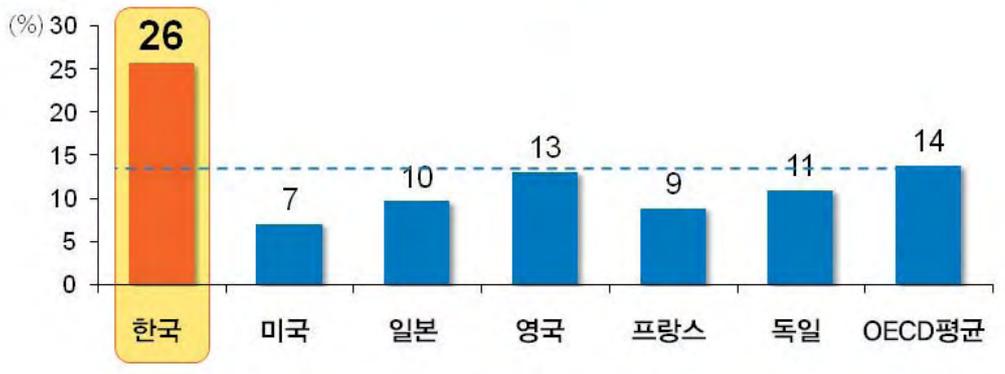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비시장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은 크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에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출처: OECD (2009) "Boosting Productivity in Korea's Service Sector"

서비스업은 ‘구멍가게’

서비스산업 중 자영업자 비중(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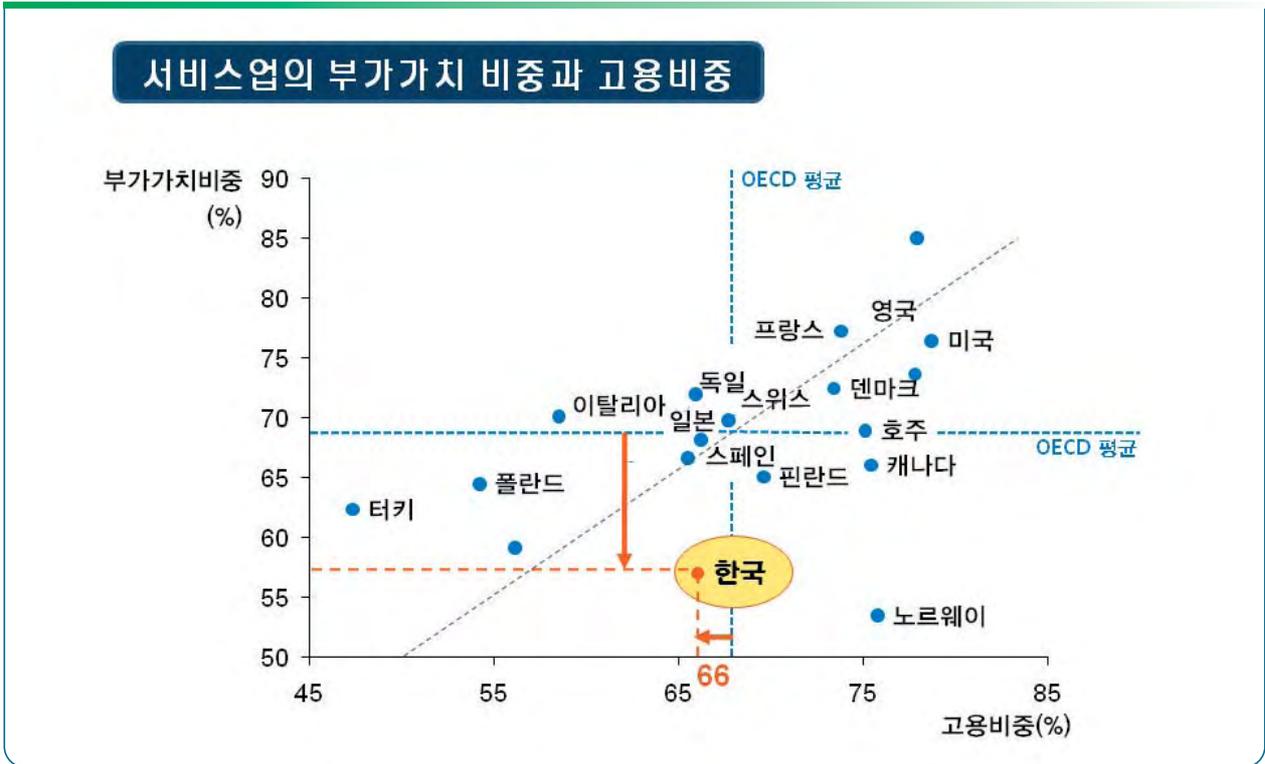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평균의 두 배인 26퍼센트입니다.

서비스업 하면 떠오르는 게
부부 둘이 일하는 동네 구멍가게,
분식집, 통닭집일 정도로 영세하다는 얘깁니다.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는
도소매, 숙박, 요식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KDI (2009)

서비스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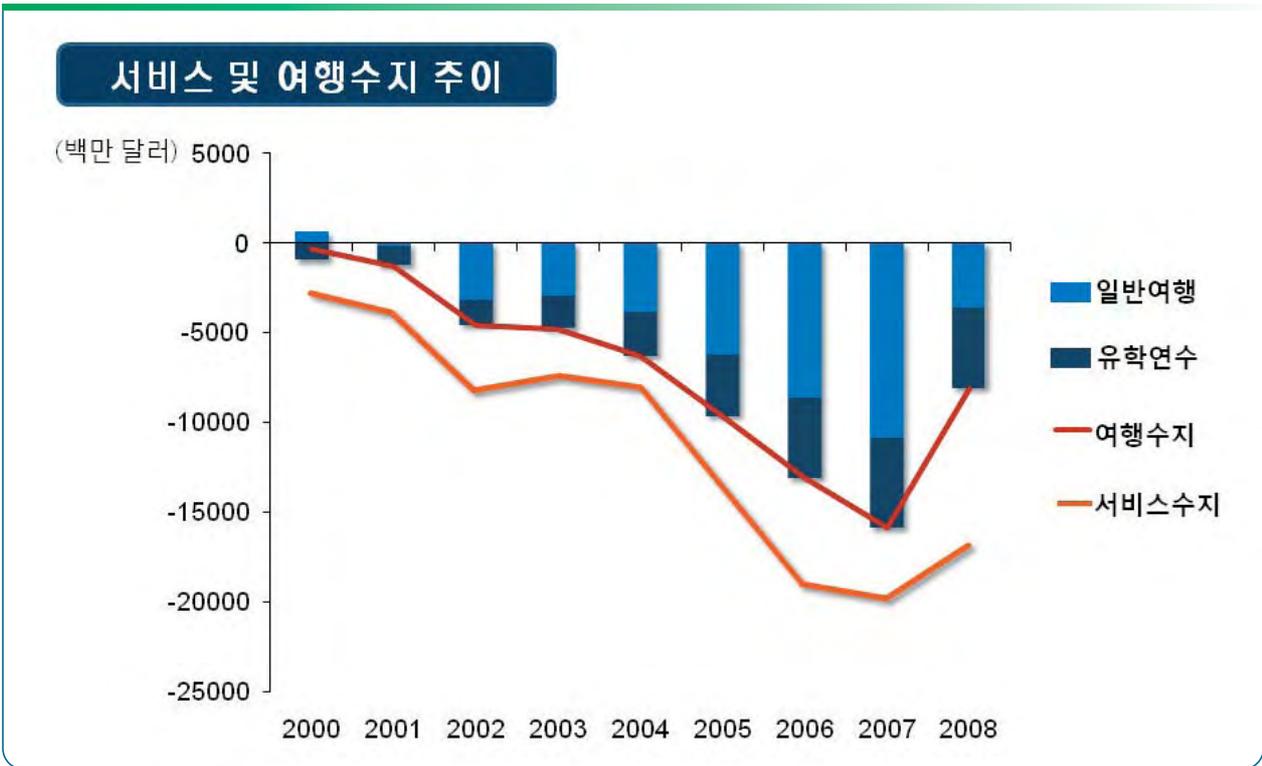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고,
고용 비중 66퍼센트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서비스업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생산성을 더 높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출처: OECD in Figures 2008

서비스 수지 적자 세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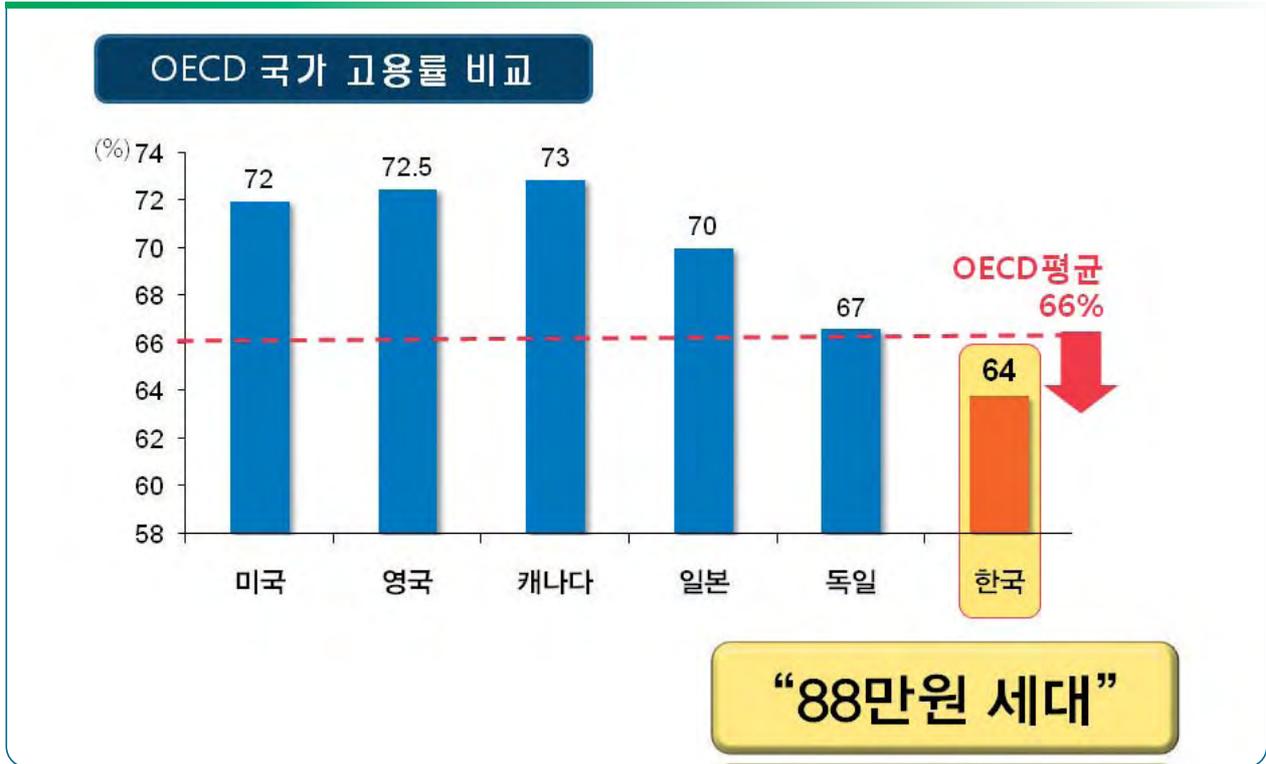
2000년 28억 달러였던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7년 197억 달러, 무려 7배로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이나 교육 등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 해외 서비스 구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유학 연수에 쓴 돈은 44억 8천만 달러, 상품 수출로 번 돈의 70퍼센트가 넘는 액수가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2009)

낮은 고용률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대부분 70퍼센트 이상인 데 비해
우리 나라의 고용률은 60퍼센트 대 초반으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출처: OECD (2006), 경제활동인구 조사 (2005)

고용 없는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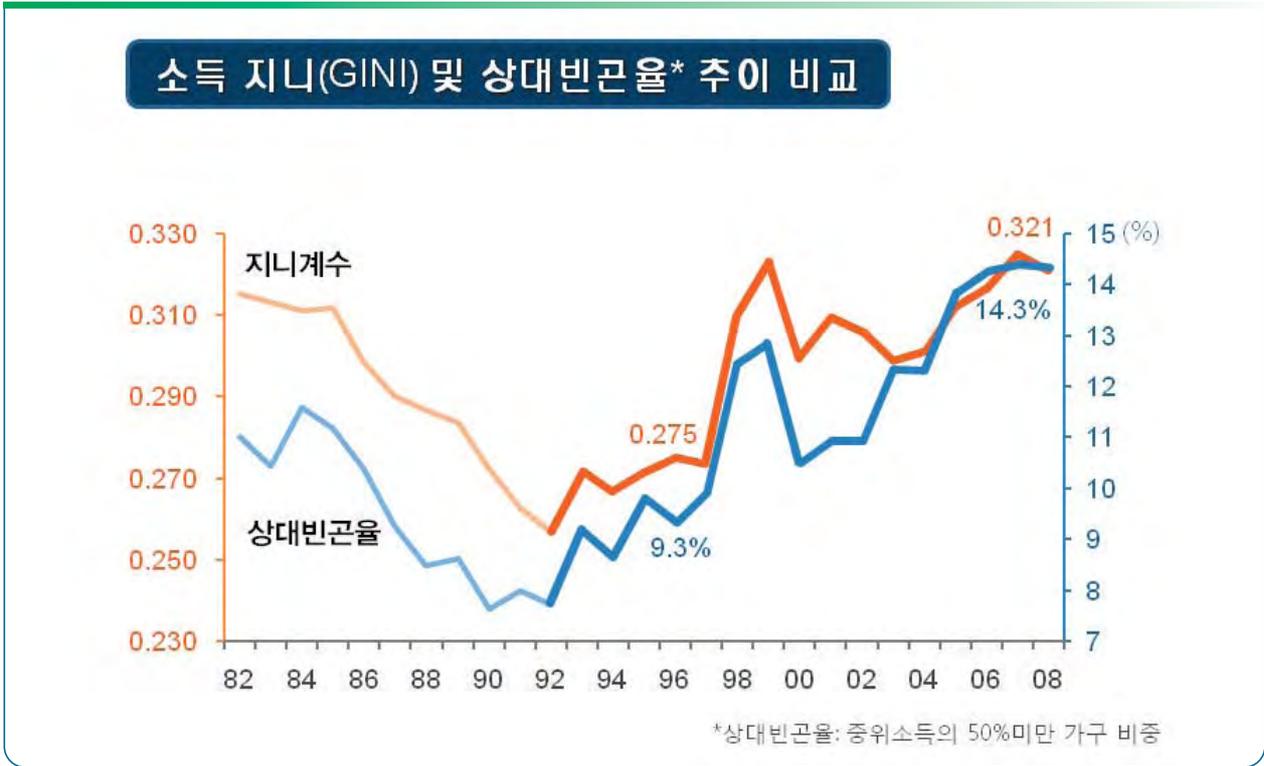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할 때에도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전기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은 IT를 활용한 기술의 고도화, 다국적 기업화가 진행돼 산업 활동이 활발해도 국내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과 경쟁하는 경공업 분야는 급격히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됐습니다.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은행 (2009)

소득 격차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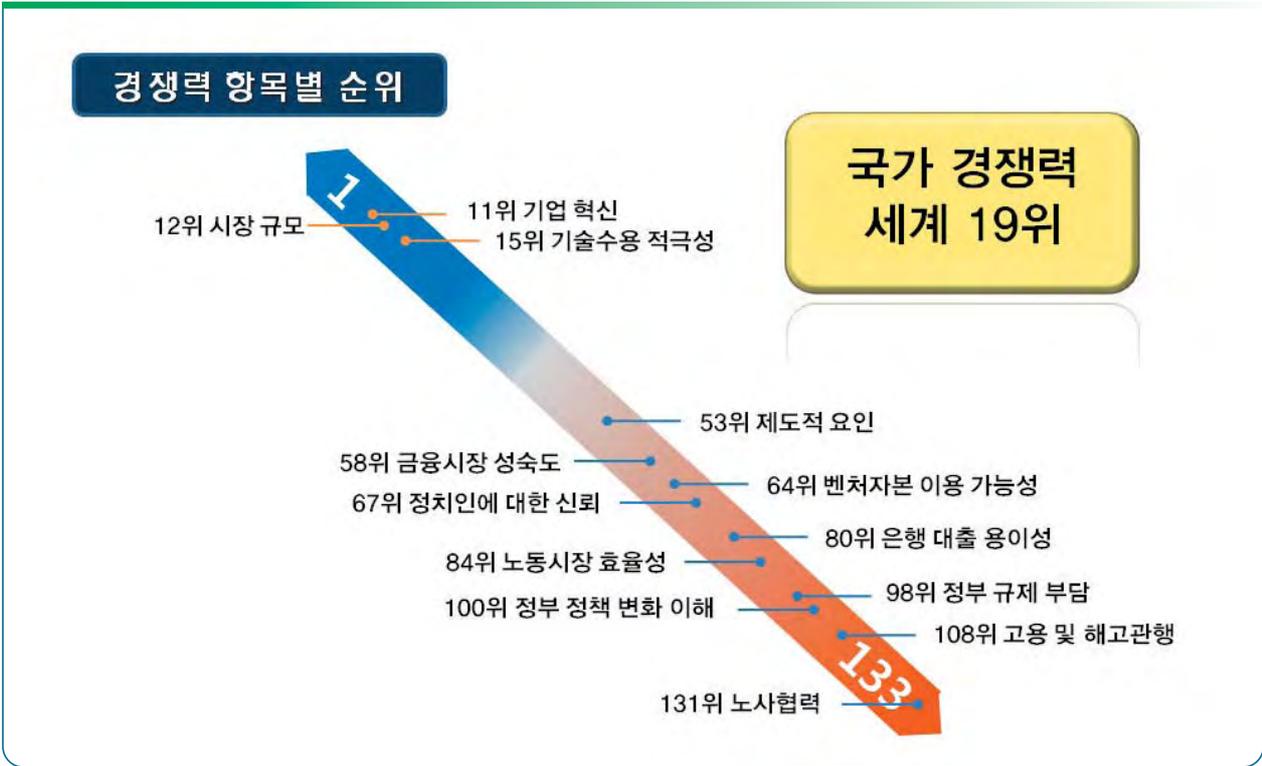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도 영세하고 생산성 낮은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많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와 상대 빈곤율은 수년간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출처: KDI (2009), 통계청

제도·문화 지체



다음은 제도와 문화의 지체 현상 짚어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세계 19위로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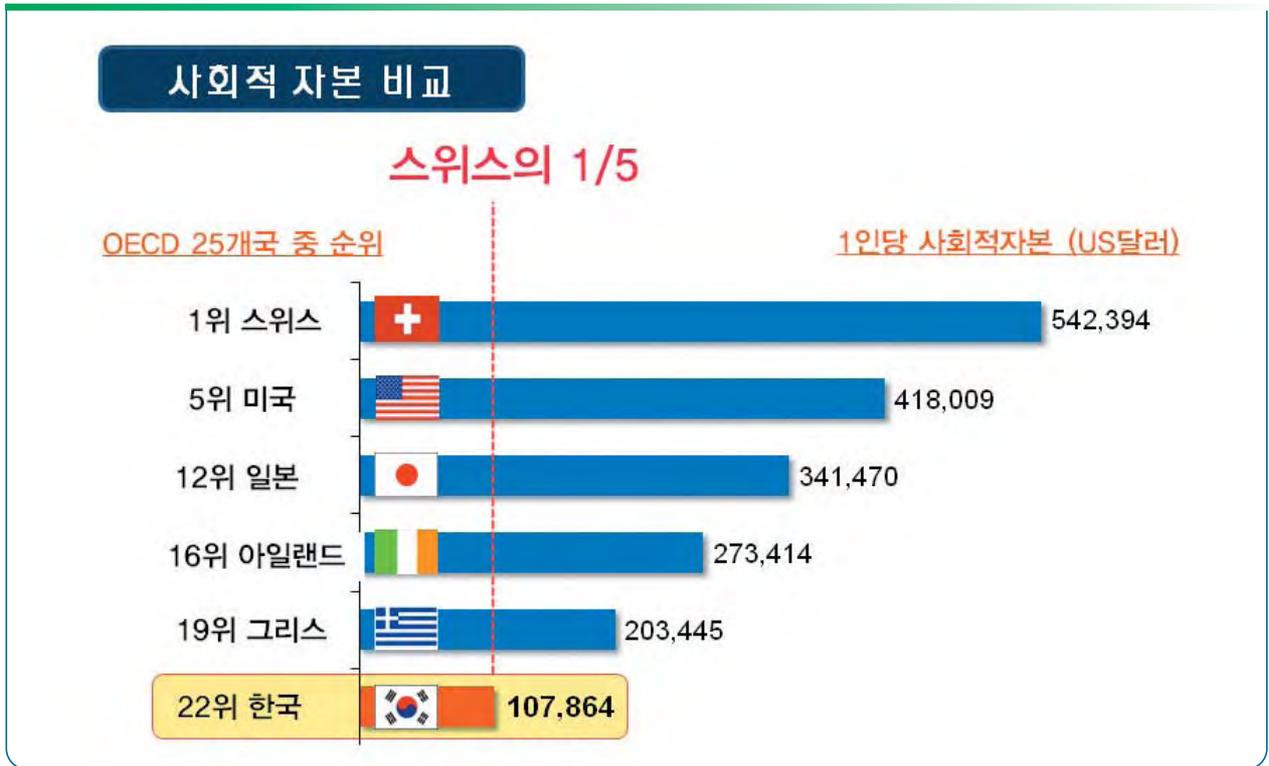
기업 혁신이나 시장 규모, 기술 수용 적극성 등에서는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등에서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노사협력 131위, 정부 규제 부담 9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 67위 등이 전체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기획재정부 (2009)

사회적 자본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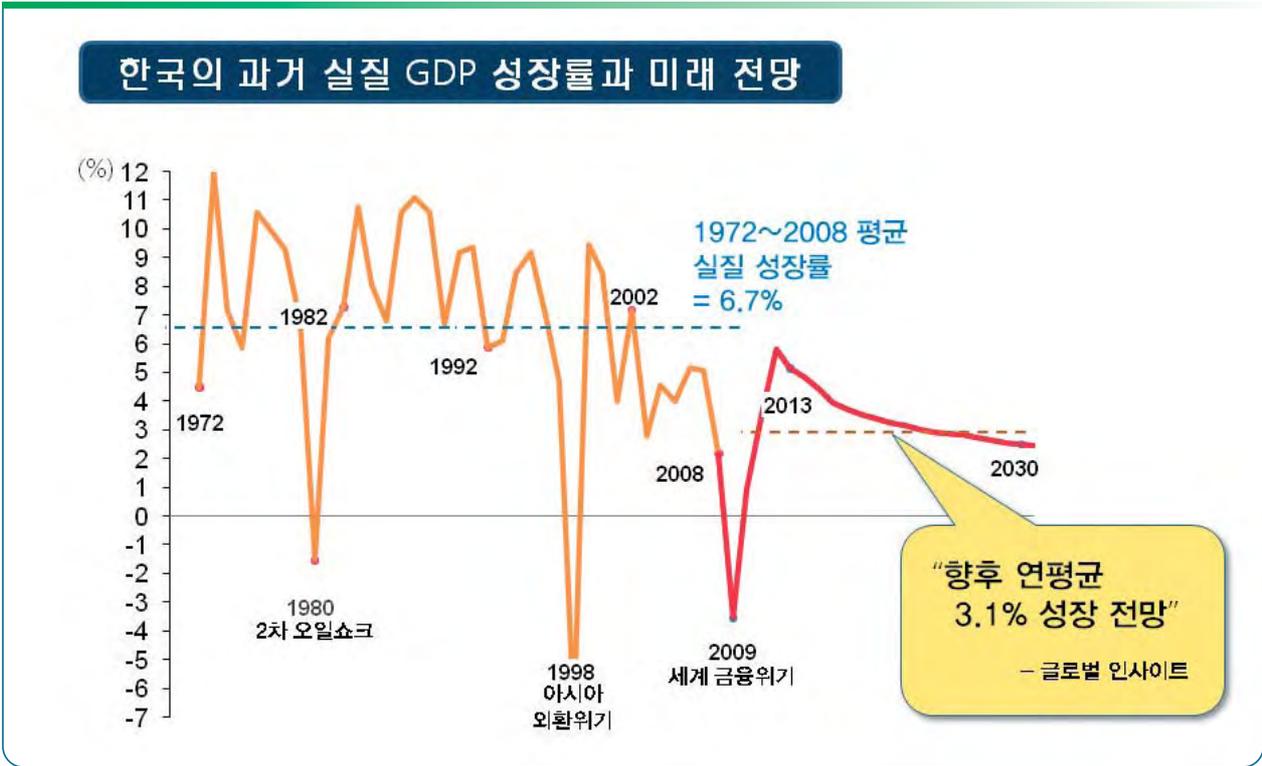
이런 문제점은 각국의 사회적 자본을 비교해 봐도 잘 드러납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자산으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의 핵심 조건입니다.

한국의 1인당 사회적 자본은 1위 국가인 스위스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출처: 세계은행 (2007)

성장 잠재력 약화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분석기관 글로벌 인사이트는
향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3.1퍼센트로 전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장 둔화는 선진국에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채 넘기도 전에
지나치게 빨리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번 위기를 벗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출처: Global Insight (2009)

III. 한국 경제 나아갈 길

이어지는 3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설

한국의 새로운 도전:
아시아의 다음 거인에서 세계의 다음 거인으로



앨리스 암스덴 (Alice Amsden)

미국 MIT 정치경제학 석좌교수
UN 개발정책위원회 위원

먼저 한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해
앨리스 암스덴 미국 MIT 석좌교수의 특별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암스덴 교수님,

한국경제 어디에



안녕하세요.

신흥경제국들은 단순히 선진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역사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신흥경제국들은 자체적인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IBM이나 Shell/BP와 같은 형태라기보다는 한국의 삼성, LG 같은 기업에 가깝습니다. 또한 그들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접근도 미국 국방부나 국립보건원보다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더 유사합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신흥경제국들은 WTO의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신흥경제국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WTO는 변화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이 전체 수출입의 97%나 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WTO는 각국의 복잡한 개발 정책들을 모두 감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또한 지하경제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신흥경제국들의 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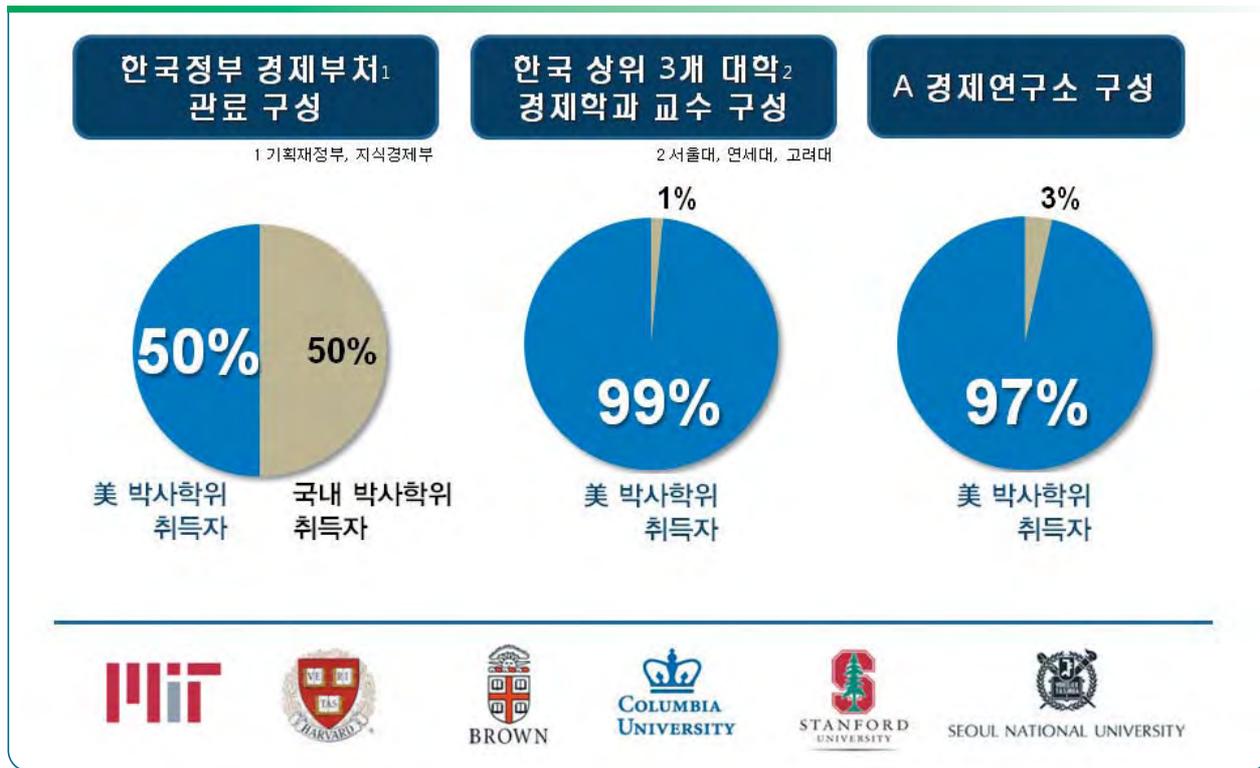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한국은 지금까지 신흥경제국 가운데 가장 훌륭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개발도상국의 기업 중 선진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한 첫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비판을 받든지 간에, 그는 거의 완전한 고용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81년에 포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기간의 경력을 가진 관리직과 생산직의 임금 격차는 매우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크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시의 흐름이었던 더 자유로운 시장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고, 금융 시장 개방으로 타격을 받는 등, 너무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당시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협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다른 신흥경제국들은 반대한 협정이었고, 이들과 한국 사이에 심리적인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정책에 있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날 한국의 정책들이 신흥경제국들의 정책과 동떨어진다면 한국이 과연 이러한 신흥경제권의 경쟁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교과서의 모델과는 다른 경제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제 전문인력 다변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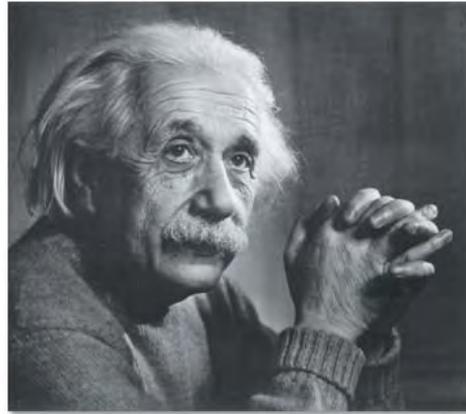
사람들의 견해와 세계관은 그들이 어디에서 박사학위나 MBA와 학위를 받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어느 국가에서 공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학계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자유시장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주변 아시아국가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신흥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부처 두 곳, 즉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살펴보면, 고위 공무원들의 배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해외파와 국내파의 비중이 거의 반반으로,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들을 미국대학으로 보내지 못한 다른 신흥경제국들보다 나은 것입니다. 저는 한국정부 공무원들을 신흥경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박식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수진이 대부분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 한국의 상위 세 개 대학 경제학과나 주요 경제 연구소에서는 다양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추상적인 수학적 모델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부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Affirmative Action) 같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교육의 다양성 중요

**‘콩 세는 사람’
(Bean Counters)만
만들어내는 교육?**



아인슈타인의 ‘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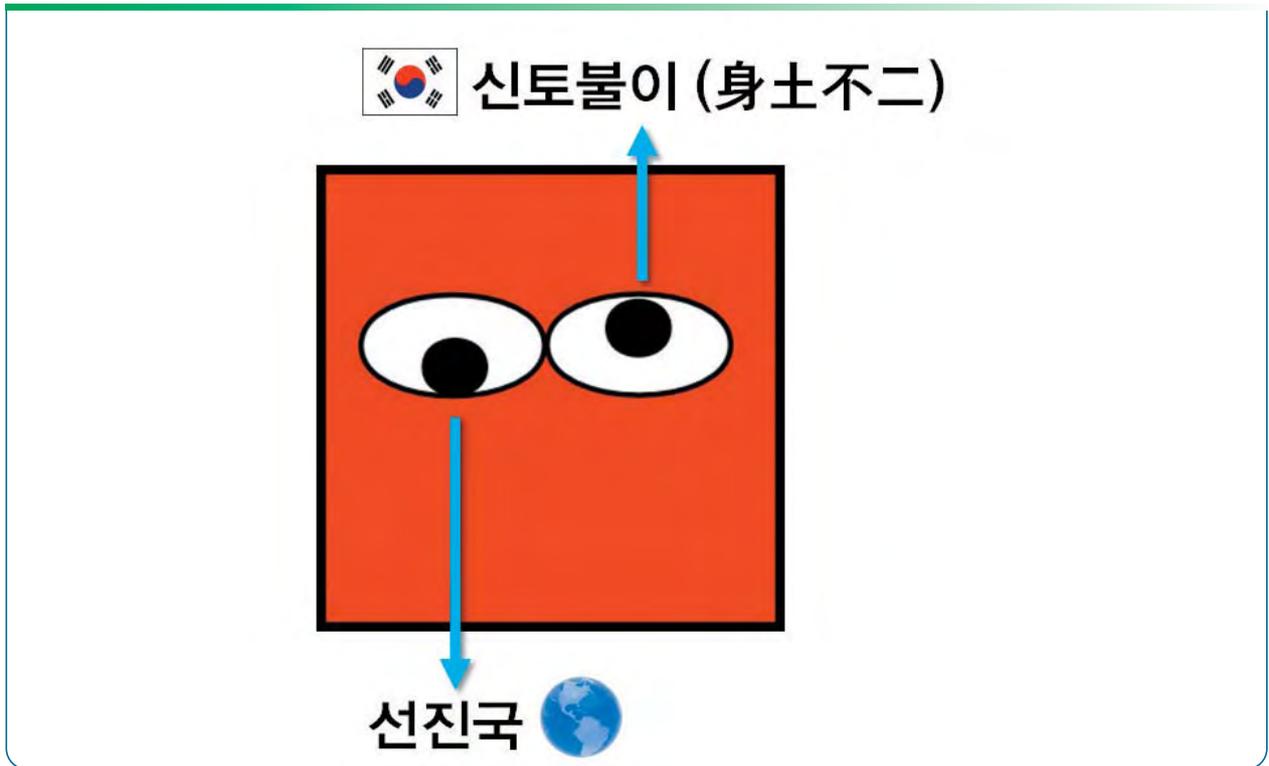
- 스위스연방 공과대학교 입학시험 낙방
- 교사직 취업 실패
- 특허사무소 심사관 근무시 승진 좌절

한국은 최고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여자대학교로 성장했고, 삼성전자의 TV 공장은 미국에 혁신적인 조립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속철도 산업은 단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 경제문화에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수준의 탁월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서울대학교는 조교수 승진을 위한 아주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5년 동안 8편의 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 중 2편은 3년 이내 최고의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하며, 남은 6편 역시 어떤 방식으로 발표되어야 하고, 기타 등등의 기준입니다. 대체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excellence?) 이것들이 단순히 ‘콩알 세기’에 그치는 건 아닐까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콩알 세기’에 종속됐다면, 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스위스 공과대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고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독일 특허청에서 그의 작업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고유의 해법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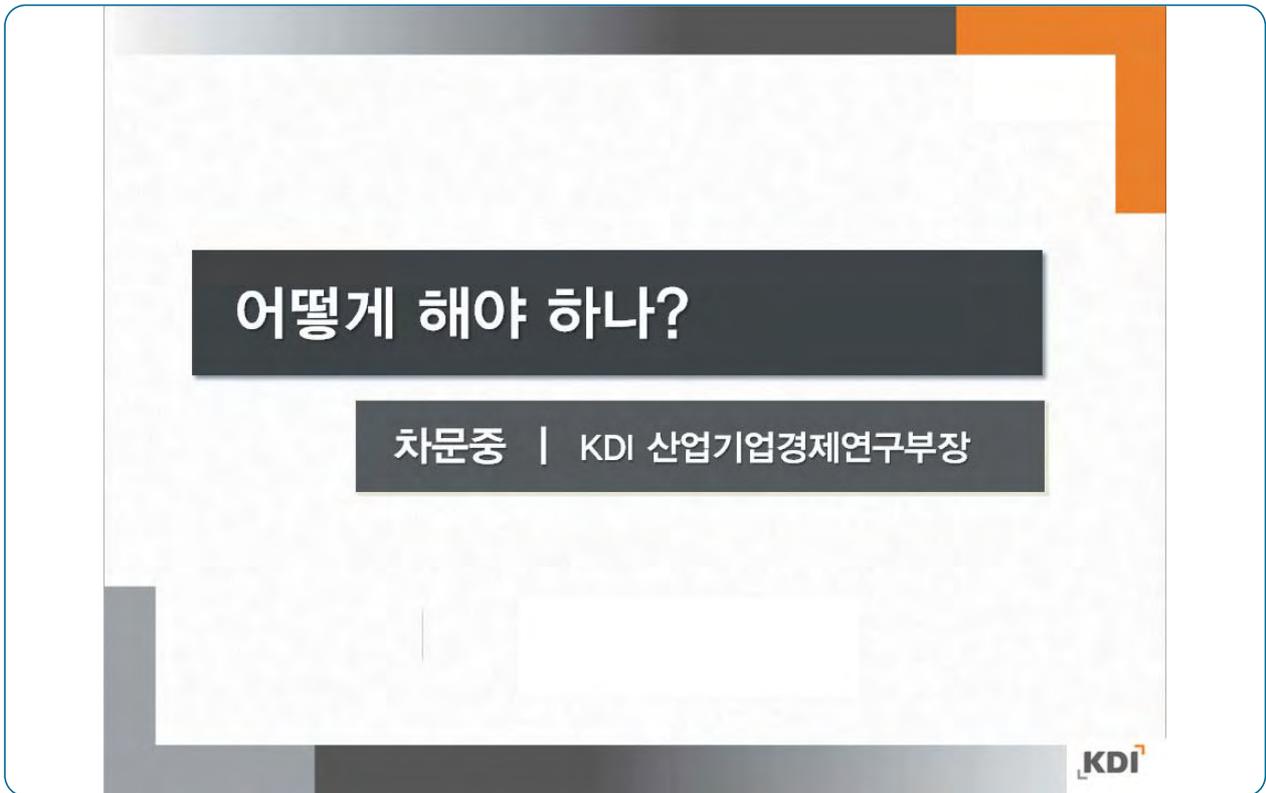


세계 각국은 21세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탁월함'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무엇이 지금의 한국을 위대하게 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단순한 콩 세는 식의 일과 진정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의 차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과 스스로 고민하는 것의 차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은 절대 '우리 땅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좋다'는 단순한 원칙, 즉 '신토불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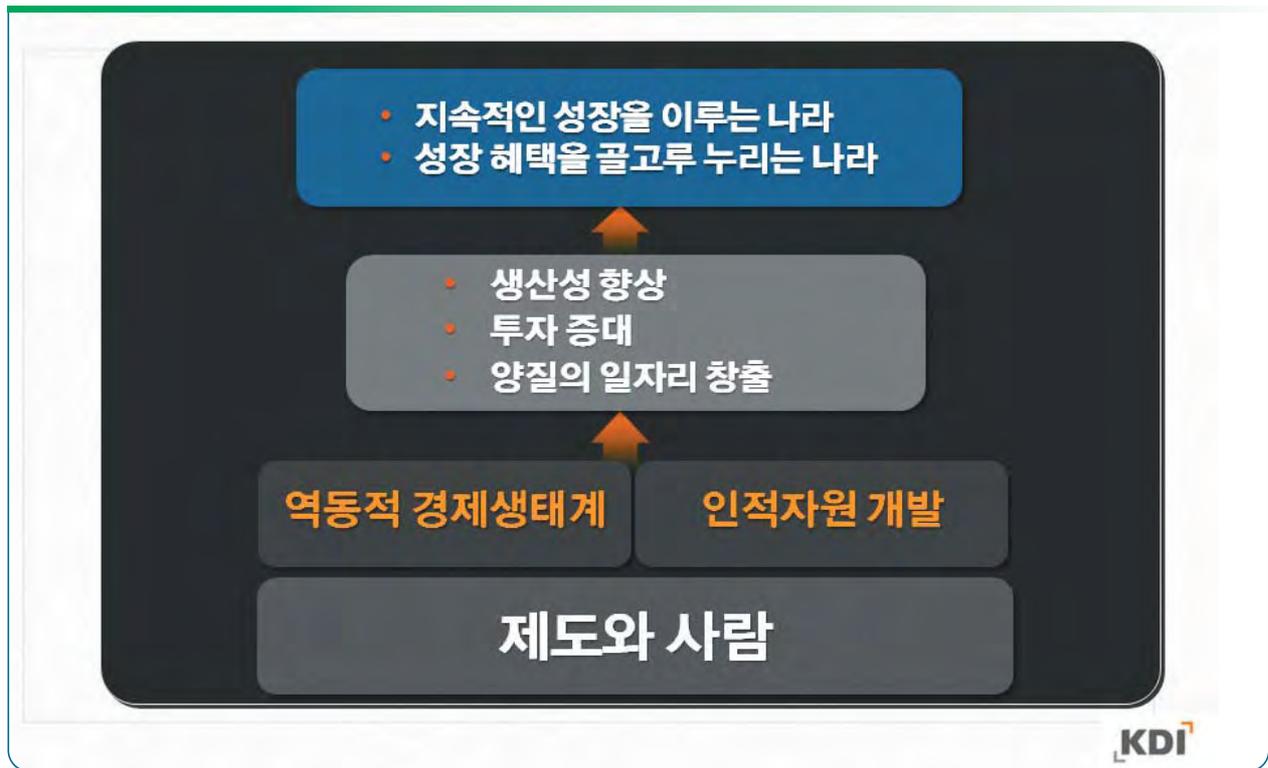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KDI의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차문중입니다.

암스텐 교수님의 연설 제목대로,
우리에게는 세계의 다음 거인으로 나설 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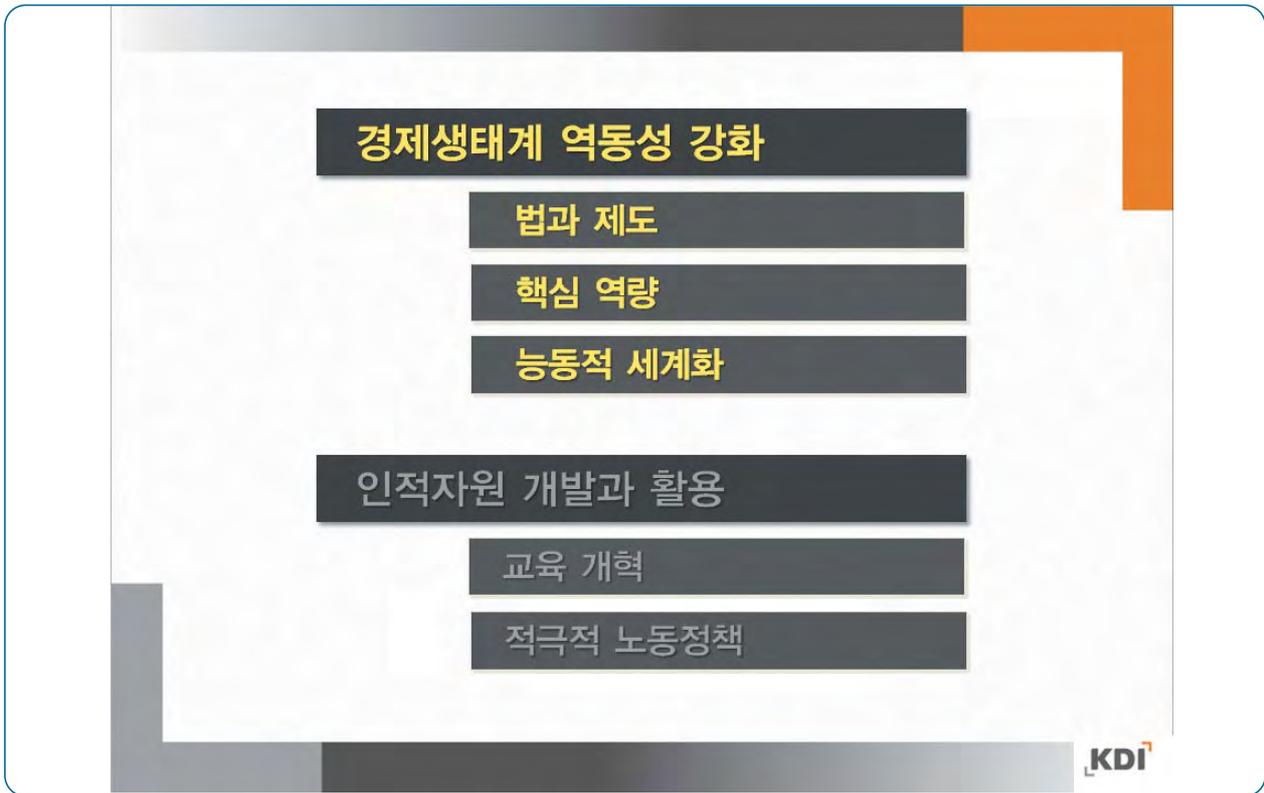
위기 이후 발전 모형



우리가 오늘 한국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 이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나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
 그래서 G-20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늘리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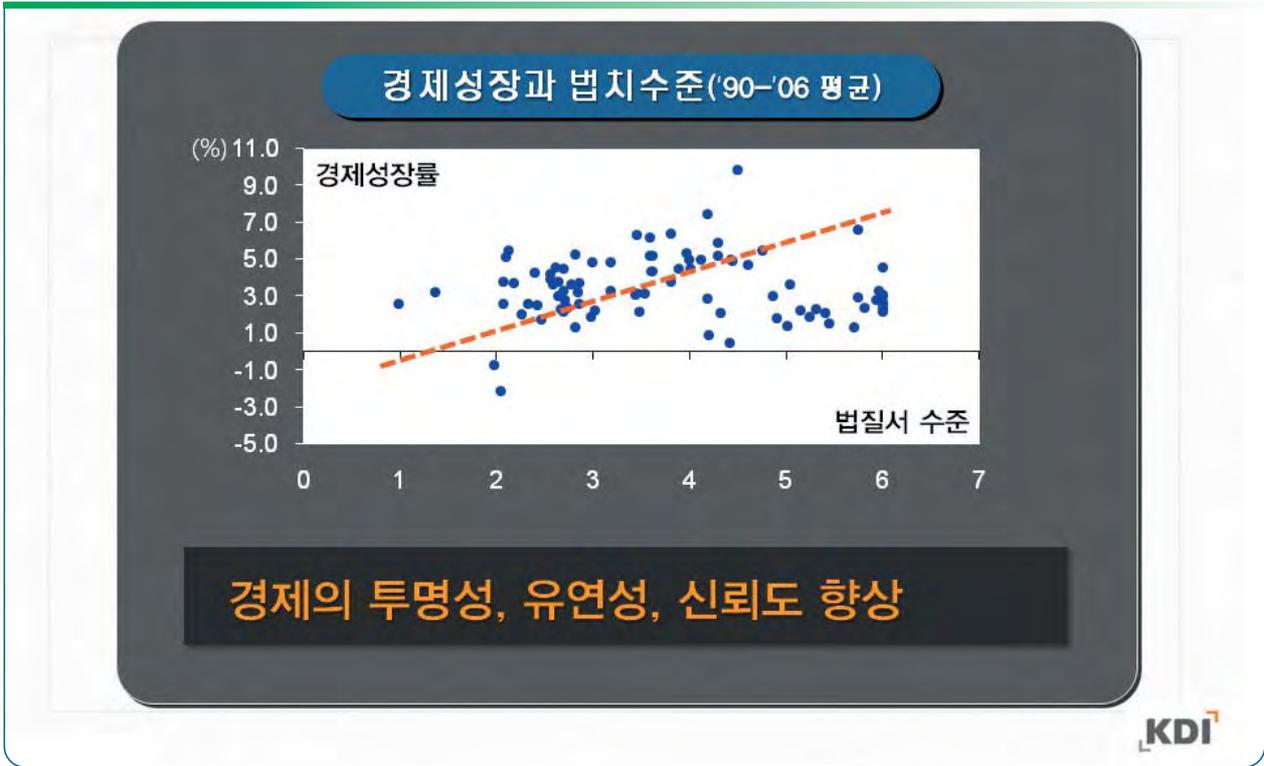
이를 위해
 제도와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경제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개혁과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경제 생태계의 역동성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이 창조되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돼야 합니다.

법과 제도 법치 확립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창의와 혁신이 장려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법질서 수준이 높은 국가가
경제 성장률도 높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경제의 투명성과 유연성,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를 증대시킵니다.

출처: KDI (2007)

법과 제도 갈등관리 시스템

고비용 구조 청산 필요

- 갈등관리 제도 개선
- 전문인력 양성
- 갈등 조정 홍보 ·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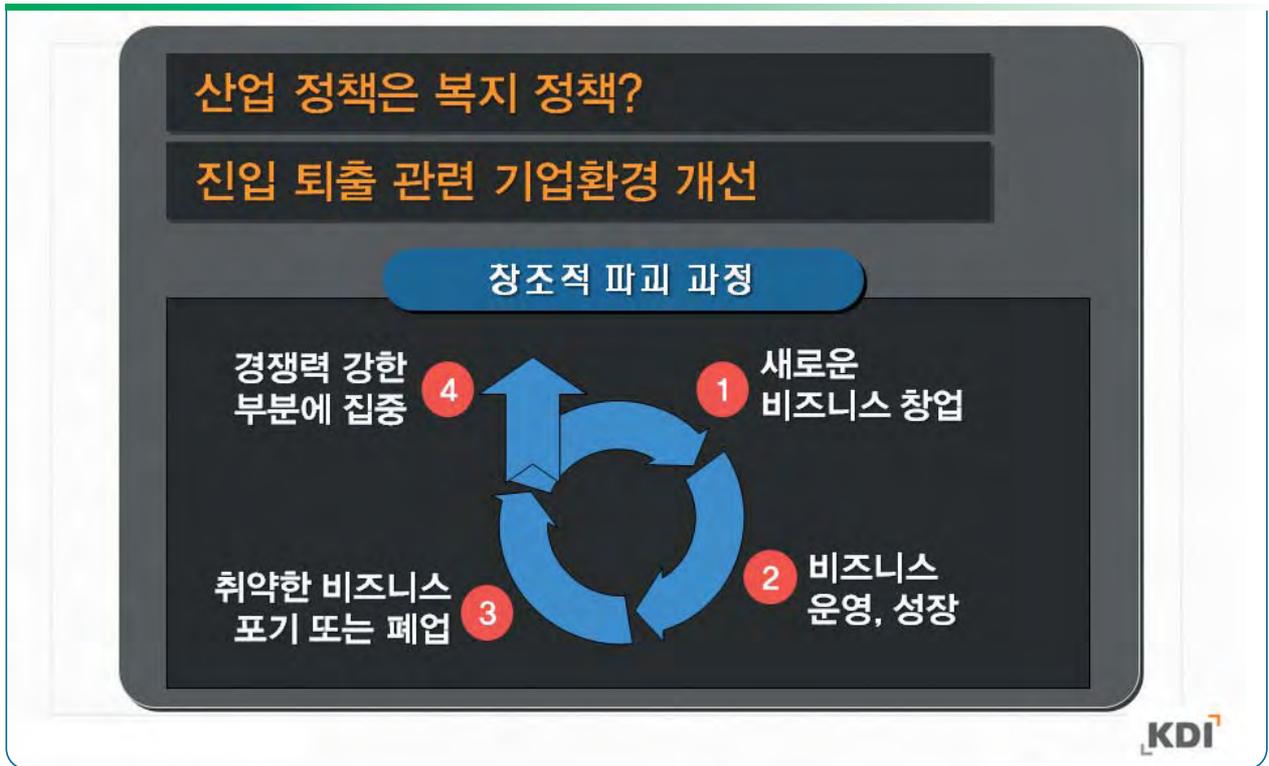
KDI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비용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갈등 역시 효율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등 관리제도의 개선, 전문인력 양성, 갈등 조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는
경제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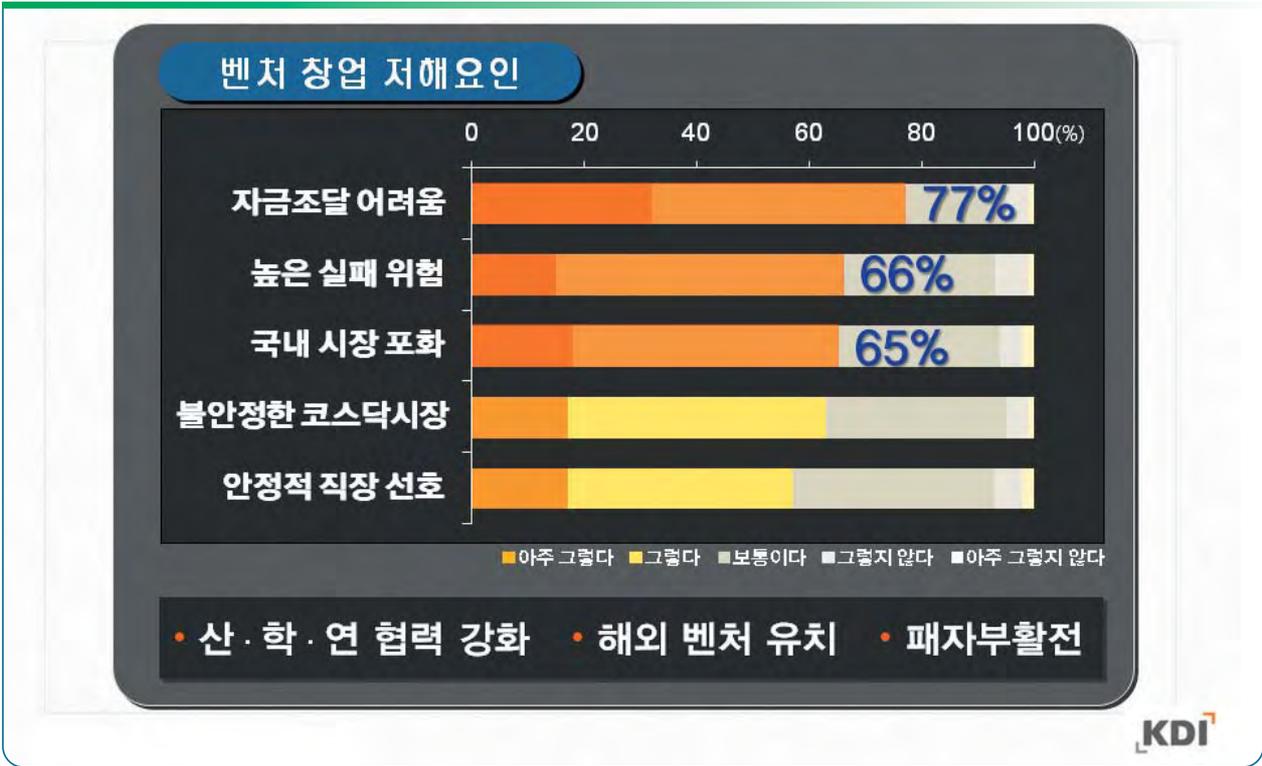
산업정책은 경쟁력 없는 기업이 연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입 규제를 줄이고 창업을 쉽게 하는 동시에
폐업이나 퇴출 역시 용이하게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한계 기업의 퇴출이 활성화되는 등 창조적 파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KDI (2003), McKinsey Global Institute (2009)

핵심 역량 벤처 활성화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어려움과 높은 실패 위험, 국내 시장 포화 등이
벤처 창업에 걸림돌로 꼽히고 있어,
이를 해소할 정책이 시급합니다.

산학연 연계를 통해
벤처 창업가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벤처 기업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출처: 중소기업청, Venture Survey (2008)

핵심 역량 성장 동력 창출

시장의 선택과 집중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활용

- 제조업 경쟁 우위 유지, 발전
- 녹색 산업 성장역량 강화
- 신 성장 동력 발굴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또한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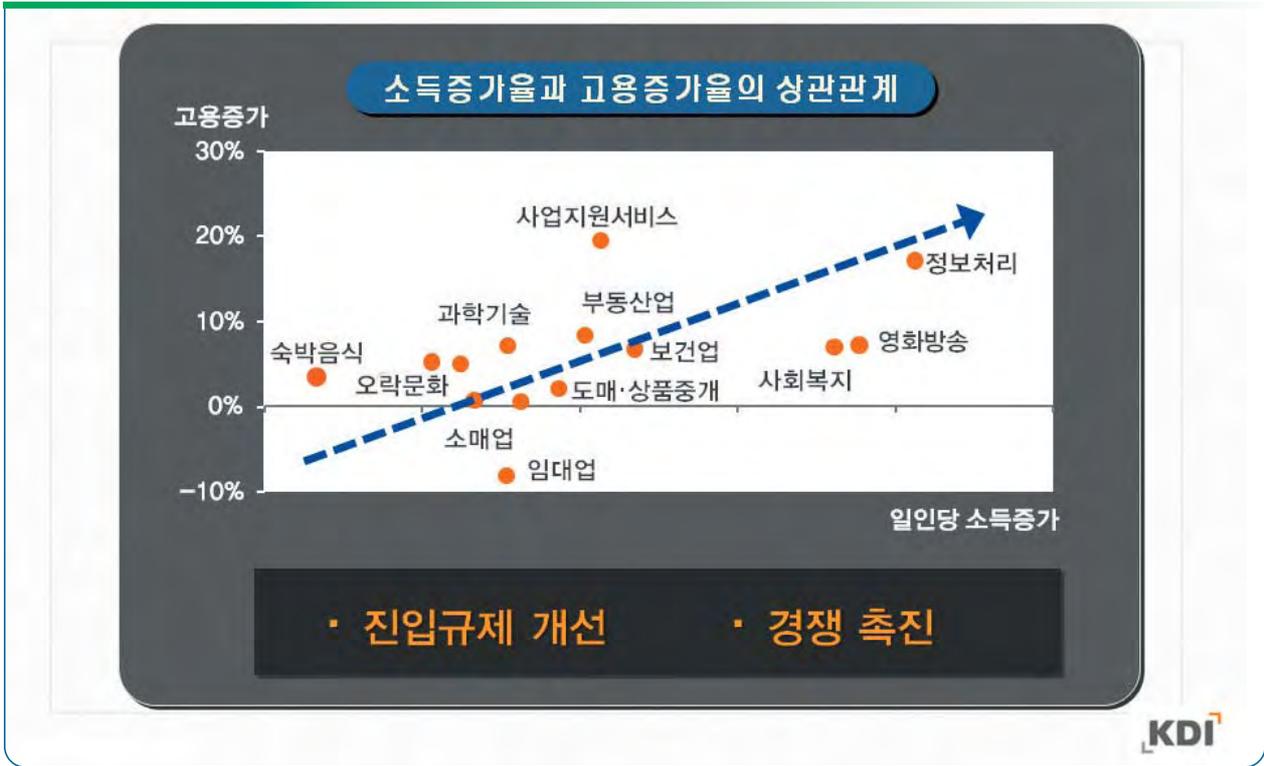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의 선택과 집중 원칙에 충실하고,
개방을 통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IT나 조선 등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오른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비쿼터스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성장을 선도할
녹색산업,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의 연관 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핵심 역량 서비스업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소득증가율이 높은 분야에서 고용 증가도 높게 나타납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서비스와 지식집약적 서비스 분야에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공급업체간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과 비교한 차별적 정책을 철폐하여
 산업적 성장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부처인 재무성을 재무 및 규제개혁성으로 바꾸면서까지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 호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린지 테너 호주 재무 및 규제개혁성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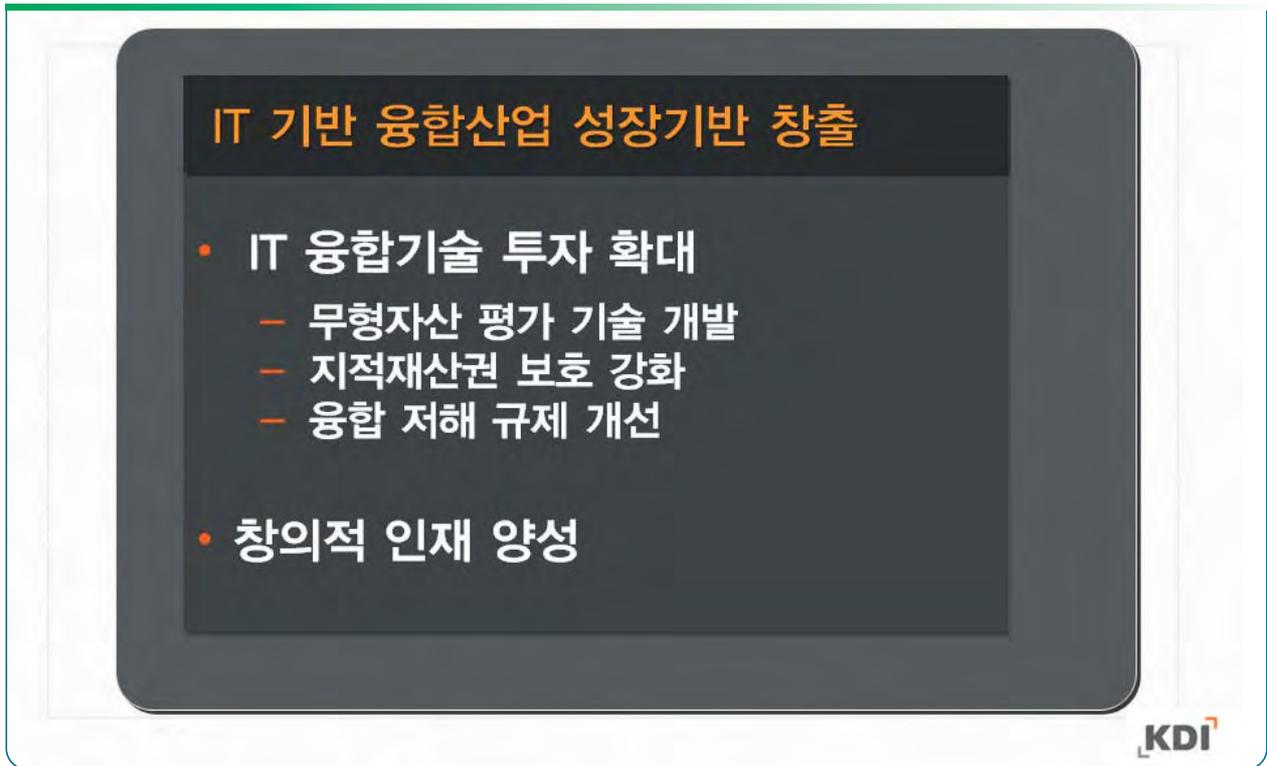
|영상|

린지 테너 / 호주 장관

“경제가 발전하고 콘텐츠가 바뀌면서 규제의 본질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타당하던 규제들이,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강화되고
 기술과 융합된 경제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KDI

핵심 역량 융합산업



미래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융합' 이고
이 융합의 중심에는 IT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업과 의료산업,
노인간병서비스가 결합하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융합산업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IT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핵심 역량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6,700분의 1

성장 지원

- R&D, 혁신 동기 부여
- 성장 단계별 혁신 지원
- 한계 기업 원만한 퇴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말로만 '협력업체'?

- 공정거래 정책 강화

KDI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도산 방지에 치우쳐 효율성 개선에 실패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등
복지 정책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제조 중소기업이 10년 뒤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6,700개 중 1개 꼴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한 규모로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연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계 중소기업은 원만하게 퇴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적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진정한 '협력업체'가 되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 거래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능동적 세계화 시장 확대와 다변화



국내시장의 한계와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 세계화는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내수나 수출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의 수출 비중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내수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글로벌 충격은 수출 비중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과 건전성을 강화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각종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BRICs와 그 뒤를 이을 신흥시장을 개척해 수출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출처: KDI (2009)

능동적 세계화 중국을 내수시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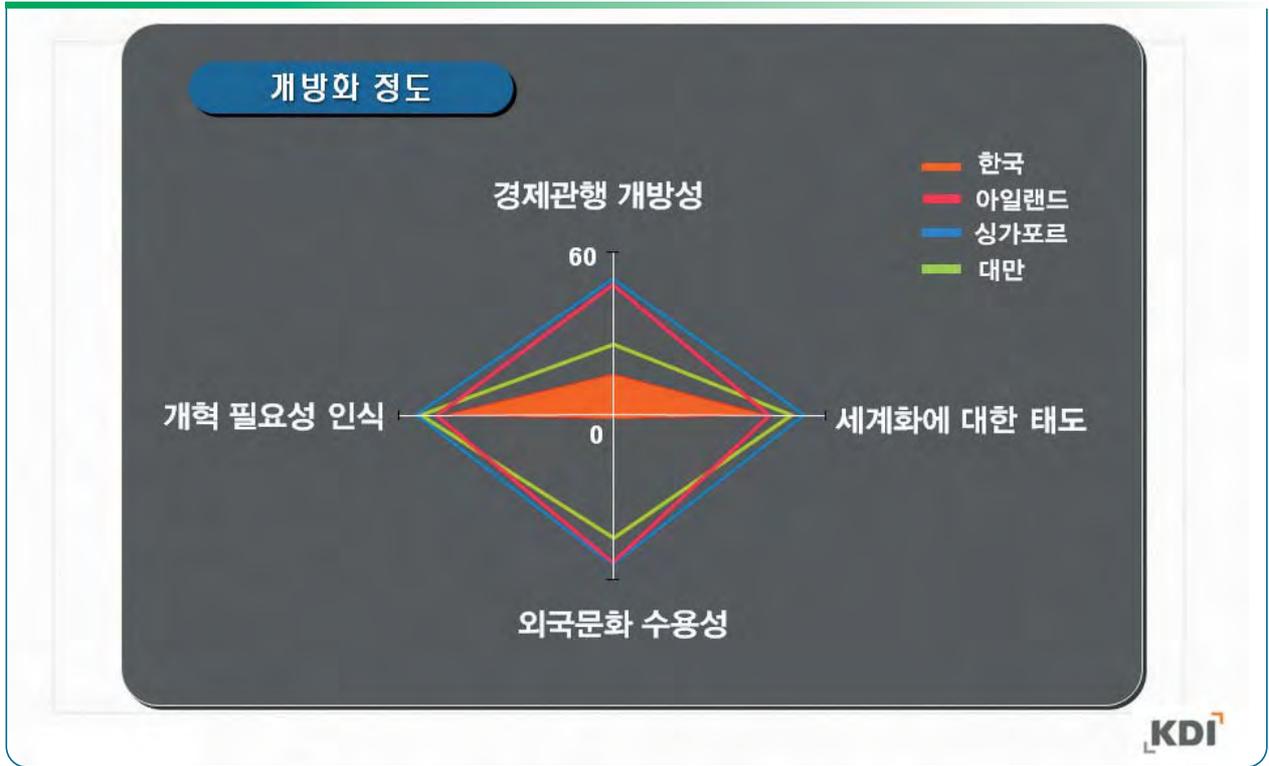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이용해 완제품을 조립하는 생산기지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최종 소비재 시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디지털가전, 승용차, 조선 등 제조업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내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녹색산업, 바이오, 우주 산업 등에서의 공동기술개발 및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파악하지 말고 몇 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광역경제권과 긴밀한 분업 및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능동적 세계화 의식과 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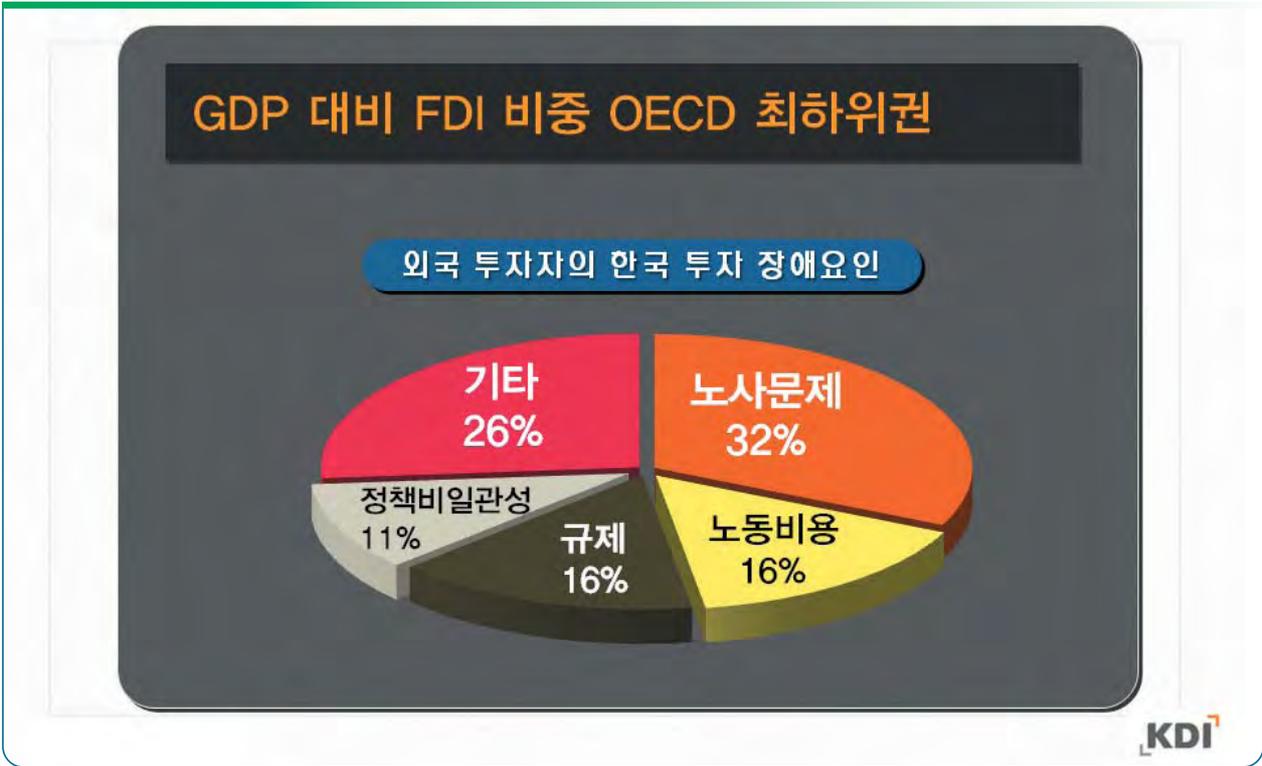


우리의 외국 문화 수용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경제 관행 개방성 역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국민의 의식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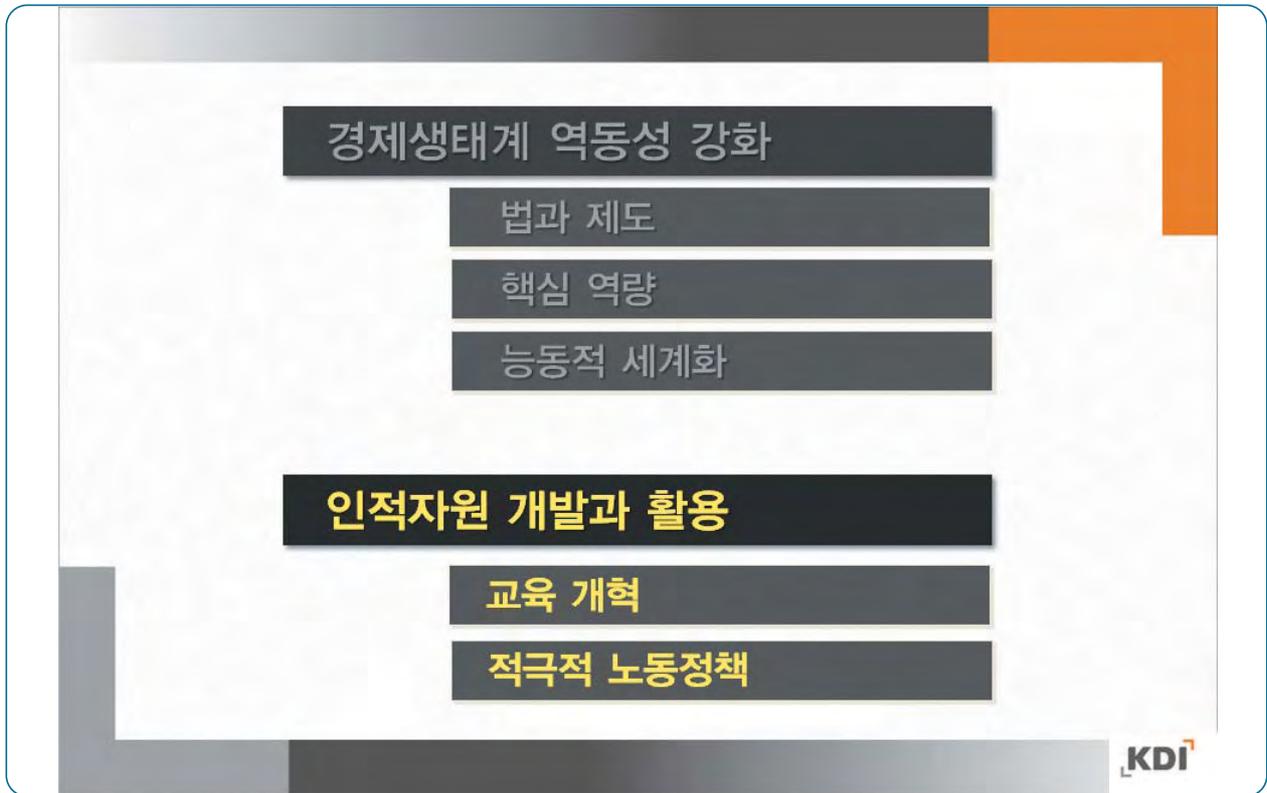
출처: IMD (2008)

능동적 세계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그리고 부족한 국내 투자를 보충하고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걸림돌로 꼽히는
노사 관계와 정부 규제, 정책의 비일관성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과 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교육 개혁과 적극적 노동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개혁 미래형 인재 양성

아동에 집중 투자

학교 교육 재구성

- 인성 교육
- 개방의식 교육
- 적성·진로 탐색기능 강화



KDI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빈곤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출발선에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인성과 개방의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 개혁 수요 지향형 교육

- 융합 · 통섭에 알맞은 인재 양성
- 산학 연계 강화
- 직업기술 전문 교육기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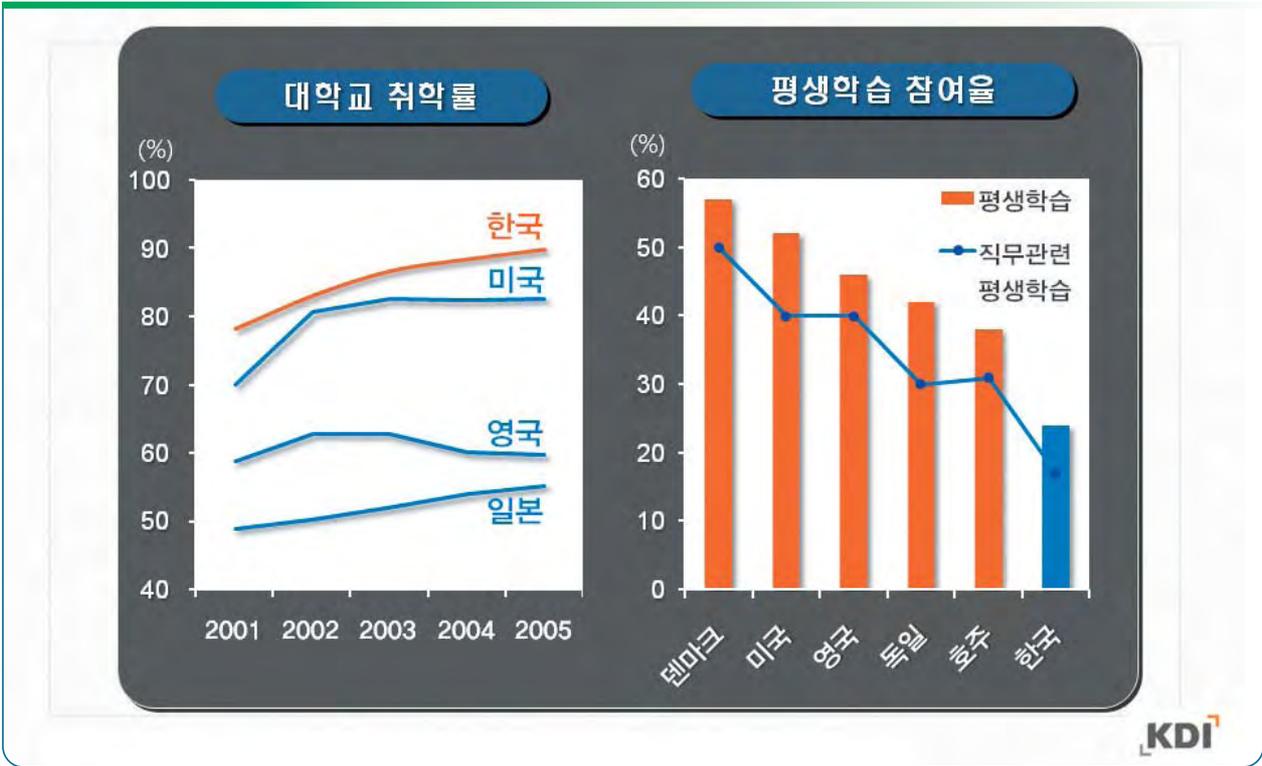


KDI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간 융합, 학문간 통섭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과거의 학과 체제에 얽매이지 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지닌 미래형 인재를 키워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 학계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 기술 전문 교육 기관을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 개혁 평생 교육 활성화



우리 나라의 대학교 취학률은 보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 시장 진입 이후에는 인적 자원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최하 수준입니다.

교육 훈련에 드는 노력과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인과 기업의 인식 전환,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출처: OECD (2002), Education at a Glance 통계청 (2004), '사회통계조사', 이병희 외 (2006),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연구' 에서 인용

적극적 노동정책 사회안전망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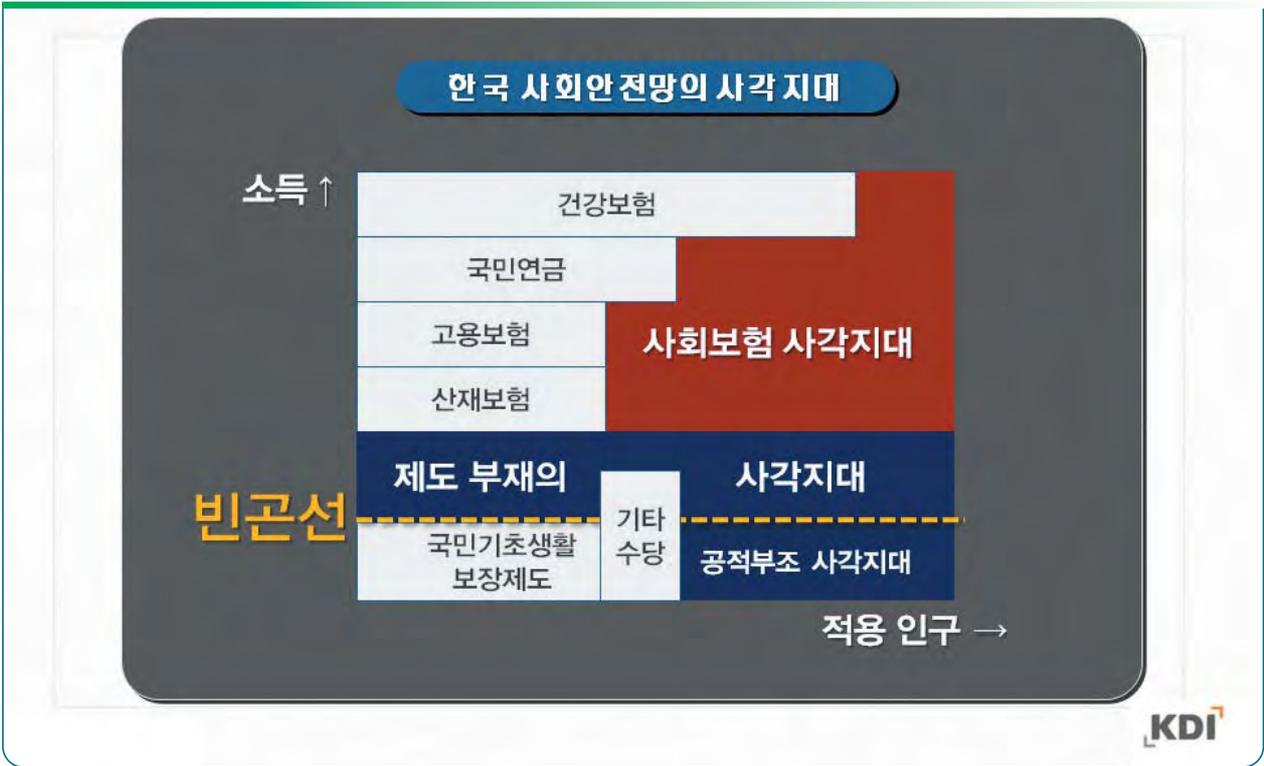
적절한 사회안전망은

일시적 낙오계층이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이나 재교육에 참여하고

외부 경쟁에 개방적 자세로 대응하도록 해서, 경제의 활력을 높입니다.

적극적 노동정책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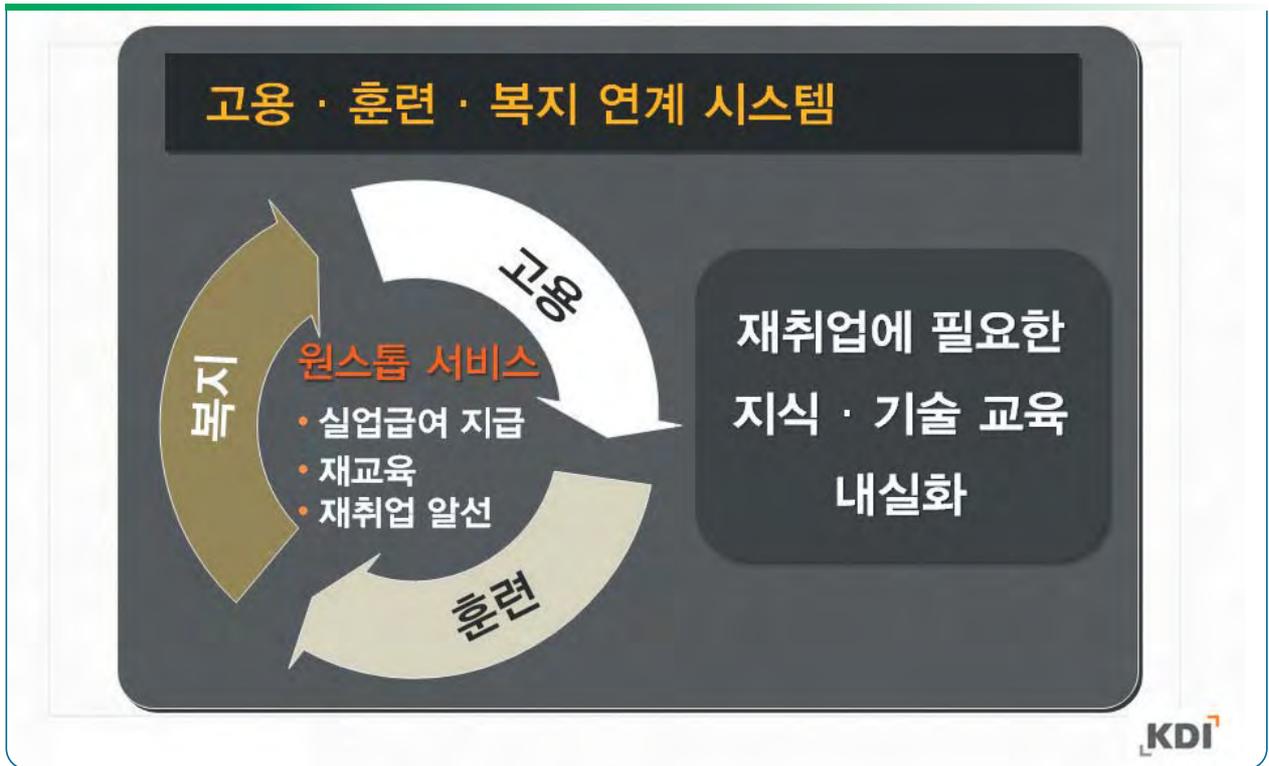


현재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틀은 확립돼 있지만, 빈곤선 바로 위의 계층과 저소득층이 소외돼 있고, 중산층이 노령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걸 막는 기능이 크게 미흡합니다.

전체 일자리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최저 생계는 보장되도록 실업 급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출처: 노대명 (2007); 동아시아연구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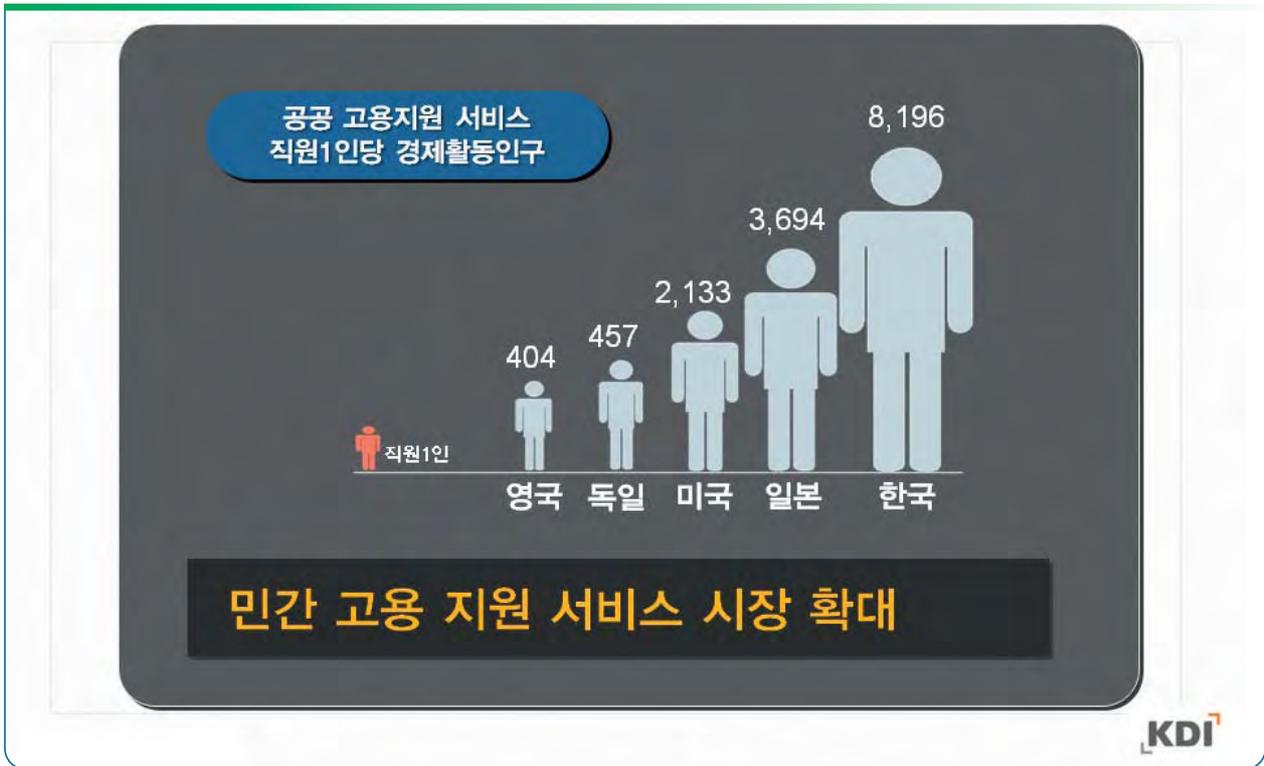
적극적 노동정책 고용창출형 사회안전망



현재 사회안전망 정책은
노동과 복지 교육 등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실업 급여 지급과 재교육, 재취업 알선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개인별로 재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적극적 노동정책 고용 지원 서비스 강화



한국의 공공 고용 지원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합니다.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가 8천여 명으로 영국의 20배에 이릅니다.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들은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지,
SBS가 취재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영상 |

세 살 가난 여든까지 가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동등한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

영국의 아동복지정책인 '슈어 스타트'의 목표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섯 살 이전에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나라에서 무료로 돌봐준다.

젼마 브라이언 / 주부

"집 바로 옆에 있어서 가깝고 무료이고,
아이들이 할게 많고 매일 프로그램이 달라서 좋아요."

정부는 아기가 태어나면,
250파운드, 우리돈 50만 원씩을 나눠줘
반드시 아기 이름으로 펀드를 들도록 한다.

샤론 월쉬 / '슈어 스타트' 센터 매니저

"5세 미만 어린이에게 투자한 1달러는 그 아이가
컸을 때 12달러의 복지비용을 절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호주의 실업자 재취업 서비스는 모두 민간 업체들이 맡고 있다.

이 업체들은 실업자들이 재취업한 뒤 6개월 이상 회사를 잘 다녀야
정부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실리 테베나스 / 앵거스 나이트 실업자 매니저

"취직을 한 다음에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필요할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주는 이처럼 시장 경쟁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팀 하코트 / 호주 무역대표부 선임연구원

"강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으면 근로자들도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는 평을 듣는다.

그 배경에는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아젠다 2010' 개혁이 있다.

2002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자, 고용과 창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나친 복지혜택은 축소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인 것이다.

페터 하르츠 / '아젠다 2010' 입안자

"월급을 적게 받을 지언정, 실직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든 것 뒤에는 인생, 운명, 가족이라는 것이 숨어있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되 그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선진국들은 실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IV. 제 언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글로벌 환경의 변화

중국의 부상

생산성 향상

사람 키우기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장 조운증입니다.

오늘 발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 중국의 부상,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사람 키우기일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리더십이 열쇠

- **공정 경쟁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 **간섭자가 아니라 지원자, 조정자**
- **신뢰 밑바탕 마련**
- **위기 이후 대비, 미래 비전 제시**

먼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 이후 정부역할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견제와 균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많이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돕는 지원자,

그리고 상충하는 이익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조정자가 돼야 합니다.

신뢰는 자유시장 경제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도층부터 법 질서를 준수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신뢰의 밑바탕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구 전략을 포함해 위기 이후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장과 부단한 소통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쟁력

- 창의성 중심의 교육 개혁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육 · 노동 · 복지 연계 효율적 시스템
-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는
지금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워내도록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탄탄한 중소기업,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잘 나가는 제조업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부처별로 따로 가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교육과 노동, 복지를 연계해
체계적인 인적 자원 양성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생산적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시혜적 복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실질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의 힘

• 글로벌 마인드

• 끊임없는 혁신

• 명예로운 실패 존중

• G-20를 뛰어넘는 나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틀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항상 창조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혁신이 실패로 이어진다 해도
명예로운 실패를 존중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G-20를 뛰어넘을 잠재력과 생명력이 강한 DNA를 가진 나입니다.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강 평



윤 증 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럼 이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한 미래한국리포트의 제언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강평과 정책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로 하여금 강평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발표해주신 내용 여러분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아침에 하고 갑니다.

금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있을 것이라는 점, 경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과도한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내수시장 등 우리 경제에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이 긴급하다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합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성장동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의 필요성 등에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들을 보면서 학창시절 제가 좋아하던 러시아 시인 푸쉬킨의 시구를 생각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슬픈 오늘은 순간일 뿐”이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라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 격동기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경제의 판이 새롭게 짜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노력하고 변화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오늘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SBS의 미래한국리포트는 매우 시의 적절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순히 반복되는 위기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제발 멀리 좀 보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경제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인 시야나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 그리 어렵고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국민의 후생’이라는 측면,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측면,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경제의 미래 비전은, 오늘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선진일류경제’라고 축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여기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그리고 성숙한 시민자세, 이러한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거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결코 진공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영향을 받고 또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양의 자본주의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 막스 베버가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경쟁의 주창자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마저 강조했듯이, 근면, 성실, 자기절제 등의 기독교 정신과 상통하는 독특한 자본주의 윤리를 바탕으로 역사적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온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서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윤리적, 정신적 토대가 취약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도시국가 외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적인 숫자 이외에 우리가 정신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자문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정말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혼돈의 시대가 계속된다면, 정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천민자본주의로 우리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사회 지도층 여러분들, 우리 모여서 이런 생각을 하는 아침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채우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법과 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면,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실종되면, 우리 사회구성원간에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요? 저는 한번 제 스스로, 우리 같이 한번 물어봤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신뢰와 투명성이 부족한 사회는 결국 예측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에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오늘 여러 번 지적되었습시다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Trust' 라는 저서에서 '신뢰' 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동, 자본, 자원과 더불어 4번째 생산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노블리스 오블리쥬' 를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쌓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우리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이 되었습시다만 내년 11월이면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왜가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만, 이 회의를 세계에 품격 높은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침 우리 국가브랜드위원장인 어윤대 총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경제의 체질,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왔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실물 측면에서는 수출의 급감으로, 금융 측면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에 우리경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큰 폭의 위축을 겪어야 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충격에 너무 쉽게, 그리고 크게 흔들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물론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외 의존도는 너무 높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운명을 외부에 맡겨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수시장의 확대가 정말 긴급합니다.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균형이 정말 절실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육, 의료, 법률, 관광, IT, 콘텐츠... 모든 많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비스 부문은 고용창출력이 높습니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습니다. 또 고급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상수지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서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산업은 '기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발상을 전환하면 못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규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겨진 세금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향유할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요, 우리 전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제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이제 좀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생존하겠습니까?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야말로 정말 결단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심에는 당과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소박한 데서 출발한다면 결정은 단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디만, 이를 위해서는 요소투입의 둔화를 완화하고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만 (work hard) 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think smart)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오늘 아침 또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교육 문제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폴 크루그만 교수는 동아시아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땀(perspiration)이 아니라 영감(inspiration)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땀이 아니라 영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가 길러지도록 자율과 경쟁원리가 폭넓게 수용되어야 합니다. 교육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데 우리 모두 국민적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시대를 이어가야 합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뭔가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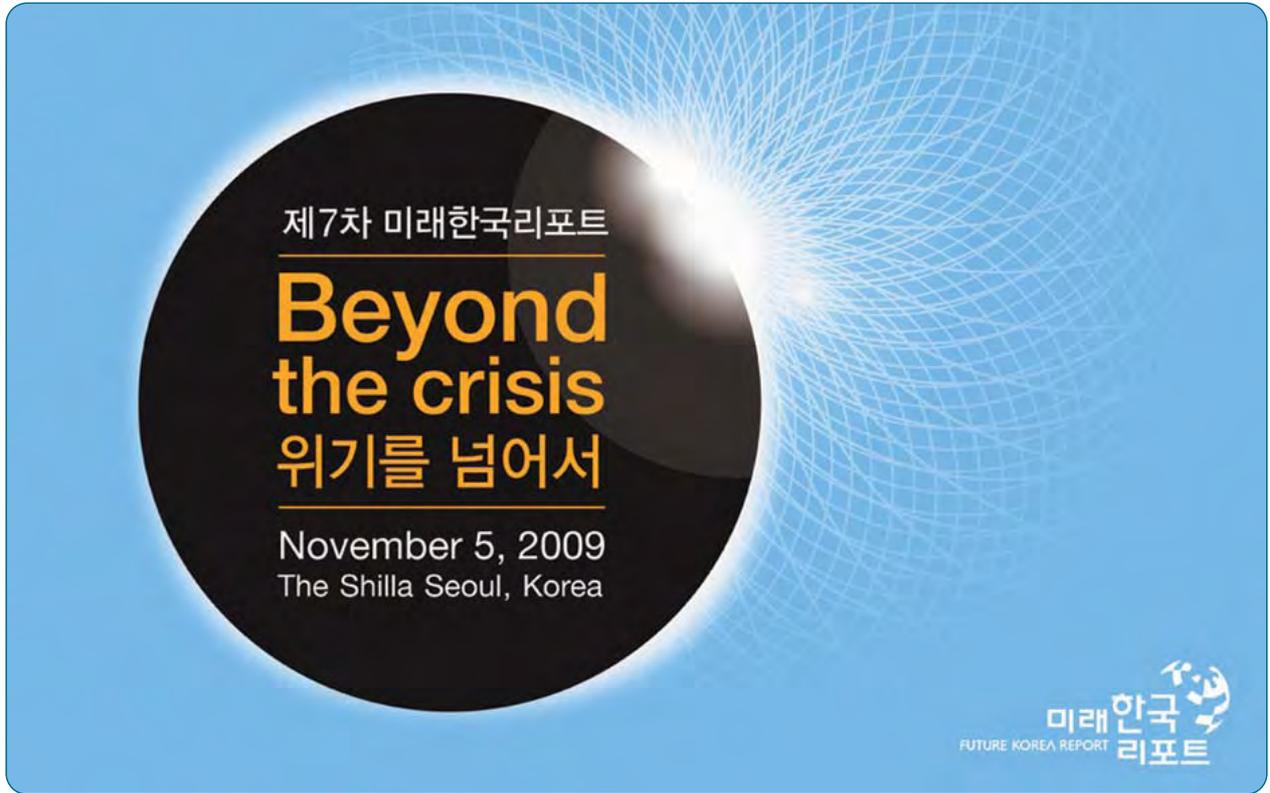
또한 기후와 환경, 그리고 에너지의 시대인 21세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녹색성장은 환경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무엇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공의 이력'이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조류에 한 때 뒤쳐져서 식민지화를 당한 적이 있지만,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몇 안 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의 자원봉사의 물결, 이번 위기시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 세계를 놀라게 한 응집력을 우리는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EU를 상대로, 아직 발효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FTA를 체결한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 말고 몇 안 되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저는 위기의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드러내서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일류경제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전환기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등반가 머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등산은 시작된다.” 우리 경제도 어쩌면 정해진 길의 끝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등산은 지금부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발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다.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위기를 넘어서’를 주제로 한
제 7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미래 한국을 여는 언론으로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연사

〈특별연설〉

앨리스 암스덴 미국 MIT 정치경제학 석좌교수
UN개발정책위원회 위원

리처드 돕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대표
맥킨지&컴퍼니 서울 사무소 시니어 디렉터

〈강평〉

윤 증 현 기획재정부 장관

SBS 프로젝트팀

조 윤 증 부국장

박 진 원 차장

김 수 현 차장

이 현 식 차장

이 정 애 차장

곽 상 은 기자

김 병 운 PD

박 준 석 프로그램 매니저

오 주 현 프로그램 매니저

박 시 내 웹디자이너(이상미래부)

신 동 욱 8뉴스 앵커

김 정 기 차장(국제부)

정 호 선 기자(경제부)

박 민 하 기자(경제부)

박 상 진 기자(사회부)

김 수 연 인턴

김 해 나 인턴

공동기획 KDI

문 형 표 경제정보센터 소장

차 문 중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김 주 훈 선임연구위원(산업기업경제연구부)

유 경 준 재정성과평가실장

김 희 삼 연구위원(재정사회개발연구부)

지식 파트너 맥킨지&컴퍼니

롤랜드 빌링어 서울 사무소 대표

정 영 환 파트너

알렉스 김

정 지 영

기획재정부

노 대 래 차관보

박 철 규 대변인

주 형 환 대외경제국장

최 상 목 미래전략정책관

이 용 재 미래전략과 과장

민 상 기 미래전략과 서기관

김 문 건 미래전략과 사무관

PCO

인 세 션

“...*crisis*...represents
danger and...*opportunity*.”

- J. F. Kennedy



158-051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SBS 보도본부 미래부
TEL 02-2113-4232 / FAX 02-2113-4238
<http://www.sbs.co.kr> <http://future.sbs.co.kr>

공동기획 : KDI 지식 파트너 : McKinsey&Company

협찬 : NH투자증권 현대자동차 한화증권